

# 高麗白磁의 研究

姜 敬 淑

## I. 머리말

高麗白磁는 靑磁와 더불어 고려인의 높은 美的 감각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고려청자의 발생보다 약간 늦은 一〇세기 중엽경 별도의 배경을 가지고 開京과 가까운 경기도 龍仁과 같은 내륙지방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量이나 質에 있어서는 靑磁에는 미치지 못하나 一二세기가 되면 中國 定窯白磁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발전하니 康津의 沙堂里와 扶安의 柳川里 窯址 출토 陶片들이 이를 일증하고 있다. 청자가 차츰 쇠퇴해지기는 一三세기 후반 이후로는 이렇다 할 고려백자의 양상은 밝힐 수 없으나 洪武二四年銘白磁鉢은 고려와 조선왕조를 잇는 과도기적 산물로서 주목된다.

高麗時代 白磁에 관하여서는 전문 연구서나 기본논문이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단편적으로만 언급되어 왔으니, 이를테면 野守健의 『高麗陶磁の研究』 Gompertz의 「Koryo white porcelain」, 小山富土夫의 「高麗白磁・黑高麗・其他」 등의 책과 論文<sup>①</sup>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후 崔淳雨가 『世界陶磁全集』의 「高麗陶磁の編年」<sup>②</sup>을 기술하는 가운데서 別項없이 靑磁와 함께 白磁를 시대적으로 다루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최근에 三上次男은 「高麗陶磁の起源とその歴史的背景」이라는 논문에서 작은 項目으로 고려백자의 기원에 대해서 쓴 말이 있고<sup>③</sup> 그 외에 짧은 글과 碩士論文<sup>④</sup>들이 있다.

이와 같이 高麗白磁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靑磁에 비해 白磁의 생산량이 아주 적으며 또한 編年에 기준이 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백자는 청자의 발전과 그 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기형, 무늬, 기법 등 그 특징이 모두 청자와 대동소이하고 다만 재료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 따라서 고려백자의 발생, 발전, 쇠퇴 과정을 조명하고자 할 때 靑磁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청자와 비교 고찰하게 되는데 실제로 기존의 청자 자체의 硯年 연구도 확실한 資料에 의거하고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여타가치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기초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백자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여타가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채, 本稿에서는 우선 그 첫 단계로서 지금까지 단편적이거나 언급되어 왔거나, 圖版으로 소개된 기존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열해 보므로써 그 대강의 윤곽이라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고려백자의 발생, 고려백자의 발전, 조선백자에로의 移行의 三段階로 살펴 보고자 하는데, 발생은 一〇세기경, 발전상황은 一세기・二세기・三세기로 크게 윤곽을 잡고자 하며 一四세기는 대체로 조선백자에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서술방법이 硯年 자료에 의거한 비교 분석도 아니고 또한 발생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中國과의 관련이 唐宋五代라는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때와 연관되고 있으므로 推論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虛함을 면치못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그러므로 주로 문제의 제기가 되거나 혹은 막연한 推論에 그치게 될 것은 硯年 일이며 때로는 현실 상황에 대한 硯年이 되고 있다. 더우기 본고의 자료로 선택한 유물 중에서 몇몇 작품과 일부 陶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초자료의 준비―사진자료―실측자료 따위―도 되어 있지 않은 各 博物館 소장의 名品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고려백자 연구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줄 初期 高麗白磁 窯址로서 주목되어 온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西里 窯址의 경우도 一九八四年 湖巖美術館에서 그 일부를 학술 발굴한 바 있으나 아직

그 후속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고에서는 인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立論의 어려움은 여기에도 있다.

## II、高麗白磁의 發生

中國에서는 六세기 중엽 南北朝 後期에 白磁가 처음으로 출현하여 七세기 隋·唐代에 와서 완성된다. 그리고 唐白磁라 함은 七세기~一〇세기에 걸쳐서 제작된 白磁를 통칭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백자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唐末五代의 白磁는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長谷部樂爾의 말을 빌린다면, 『中國白磁의 정의를 먼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六세기 중엽경의 中國白磁는 처음에 靑磁와 白磁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다가 白磁로 성장한다고 하며 중간적인 성격을 띄는 것중의 하나가 百濟 武寧王陵(五二六)년 출토의 罎(圖一)이라고 말하고 있다.』<sup>⑤</sup> 또한 七~八세기 후기로 간주되는 慶北 義城 출토의 唐 邢州窯 白磁瓶(圖二)<sup>⑥</sup>의 존재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또 다른 中國 白磁의 예이다. 그러므로 六세기 중엽 이후 우리나라는 中國으로부터 전래품 혹은 무역품의 성격으로 이미 中國 白磁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애용하고 있었다. 그 예로는 一九七六년에 발굴한 雁鴨池 출토 中國 邢州窯系 白磁罎<sup>⑦</sup>(圖三·一·二·三·四)과 定窯系 대접(圖四·一·二·三·四)이 있다.

그 외에도 皇龍寺址 木塔址心礎石 아래에서 출토된 白磁小壺<sup>⑧</sup>(圖五)와 彌勒寺址에서 출토된 大中 一二年(八五八) 銘土器片과 동일층으로 간주되는 층으로 부터 나온 中國磁器들<sup>⑨</sup>(圖六)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白磁가 제작되는 시기는 확실한 자료나 기록은 없지만 대체로 청자가 제작되는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하고 있거나<sup>⑩</sup> 약간 늦은 때라고 본다. 그러므로 백자의 발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① 소위 靑磁, ② 해무리굽罎과 대접, ③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西里 高麗白磁窯址, ④ 「淳

化四年」銘壺 등의 네가지 문제이다.

### (一) 소위 靑磁

靑磁는 統一新羅土器의 전통 위에서 발전한다. 그 당시의 고도의 토기 제작기술은 中國 唐末五代의 磁器기술을 받아들인 데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예컨대 統一新羅時代에는 登窯(오름가마)에서 高火度의 還元焰 기술을 습득한지 이미 오래며 더군다나 외래의 鉛釉 시유 방법을 적용한 靑釉土器, 토착기술인 灰釉土器 등을 이미 제작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粘土 대신에 고급의 磁器質의 胎土를 사용하고 鉛釉나 灰釉 대신에 鐵分의 함량이 二~三% 정도 포함된 長石釉를 씌워 약 섭씨 一,二〇〇~一,三〇〇도에서 구워내면 소위 靑磁가 된다. 이때에 鐵分의 함량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白土에 고급의 長石釉를 시유하면 곧 白磁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土器에서 磁器로移行하는 과정에서 주목되어 온 것이 소위 靑磁이다. 그러나 靑磁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은채, 九세기말~一〇세기 초의 中國 北方窯業의 영향하에서 제작된 선구적인 청자로 기술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靑磁는 과도기적인 산물, 혹은 선구적인 청자가 아니라 二세기에 본격적으로 발달한 청자의 전단계인 一세기 중엽경의 지방가마의 제품으로서 보아야 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靑磁라는 말이 한국도자사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느냐를 간단히 살펴보면으로써 靑磁와 白磁의 발달 배경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靑磁라는 용어는 一九六五년 仁川市 景西洞의 窯址가 발굴될 때 이 窯址의 성격을 靑磁窯址로서 규정하면서 假稱되기 시작하여 「仁川市 景西洞靑磁窯址發掘調査概要」에서 명문화 되었다<sup>⑪</sup>.

이 조사개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선구적인 혹은 토기와 청자와의 과도기적인 청자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또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이 窯址產의 磁器는 비교적 精選된 靑磁系의 靑

은 胎土위에 粗質의 綠青色施釉를 한 것으로서 日本에서도 古來로 이러한 部類를 「이라보」(伊羅保), 또는 「이라호」라고 俗稱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高麗時代의 前期와 後期 또는 李朝初에도 있었던 종류로서: 특히 이러한 부류의 靑磁中에는 그 器皿樣式과 手法으로 보아 本格的인 古靑磁의 成立에 先行하는 일종의 선구적 청자로 인정되는 유형이 있으므로 관심이 깊다.」라고 기술하여 綠靑磁는 결국 古靑磁가 부터 조 新초기 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일단 광범위하게 설정하면서도 器皿樣式과 手法으로 보아 선구적인 청자로 보고저한 의도가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窯址 출토 陶片에 대해서 기술하는 곳에서는 『廣口長頸瓶類가 적지않고 접시·대접류가 많으며 특히 큰 그릇이 매우 많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라고 기술하여 토기 전통에 바탕을 둔 선구적 청자로 보고 있으면서 『綠靑磁片과 함께 粉靑系 陶片이 간혹 섞여 나오고 대접 구연 부가 안쪽으로 등글게 말려 도톰한 테를 이루고 있는 것이 慶州暗谷의 粉靑窯址 채집 대접구연부(※자료 제시 없음)와 꼭 같다.』는 이상의 二가지 이유로 해서 景西洞 綠靑磁窯址는 『一四세기 후반 또는 一五세기 경에 활동하던 窯였다고 추정한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상의 발골 조사개요에서 볼때 綠靑磁의 개념은 綠色의 靑磁로 일단 본것 같으며 古靑磁기·후기, 심지어 조선시대까지 그 제작기간을 잠음 으로서 상당히 주관이 없는 모호한 綠靑磁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셈 이다.

그 후, 一九七〇년 박물관신문의 鄭良謨의 글에 의하면 ⑩ 景西洞 출토 陶片은 『수비가 잘 안된 잡물 섞인 회색·암회색 태토에 녹색 또는 황갈에 녹색이 곁들인 유약이 시유되었고 釉面이 고르지 못한 것 등으로 보아 北方靑磁의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晚唐五代 기형에 흡사하다.』라고 하면서 九?一〇세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綠靑磁라는 용어는 직접 쓰지 않았지만 景西洞 陶片을 九?一〇세기 초로 보아 선구적인 청자로 일단 해석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一九七五년에 발간된 『韓國美術全集』 九권의 崔淳雨의 「高麗時代 陶

磁」⑪라는 개설에 보면 『一〇세기 초에 中國黃河流域의 北方系 청자기술 이 黃海沿岸 中部地帶에 이식된 것으로 仁川市 景西洞, 忠南保寧·瑞山 지방에 분포된 산화염 또는 중성염 번조로 보여지는 粗質靑磁 窯址가 그 계류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仁川市 景西洞 요지 파편은 『晚唐樣式의 질은 여운을 느끼게 하는 器皿이 많다.』라고 하여 대체로 景西洞의 綠靑磁 窯址는 一〇세기 초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一九六五年 景西洞 窯址發掘 概要에서 언급한 자신없었던 입장과는 달리 一〇세기 선구적 인 청자로 거의 확신하여 규정짓고 있다.

그 후 景西洞 陶片과 같은 소위 綠靑磁 종류는 대체로 九세기 말?一〇세기 초의 선구적인 靑磁로서 거의 모든 글에서 확고하게 기술⑫하고 있어 청자발생에서 선구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一九八三년에 學界에 알려지고, 一九八四년에 史蹟으로 지정된 全南海南郡山二面 珍山里 일대의 약 六〇여 곳의 綠靑磁 窯址群은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⑬ 海南은 靑磁生産의 요람지인 康津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며 康津의 靑磁와는 그 계통을 달리하는 소위 綠靑磁 종류를 생산한 곳으로서 仁川 景西洞의 綠靑磁 窯址와 더불어 재조명 받게 되었다. 이를테면 珍山里의 靑磁 窯址는 一세기 중·후반 경의 粗質의 胎土와 釉藥을 사용한 地方靑磁로서 간주되는 窯址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珍山里와 거의 유사한 기형과 기법상 유관한 특징—대접, 완, 접시, 광구호, 광구병, 호, 경사진 도지미 등—을 보이는 景西洞의 綠靑磁 窯址는 종래의 사실이었던 九세기?一〇세기 초의 中國 北方의 酸化 焰 窯業의 영향을 받은, 이를테면 土器에서 靑磁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인 窯로 보았던 견해에 대한 異論이 제기된 점이다⑭.

이와 같은 새로운 견해는 청자의 발달에 있어서 과거의 一元의 縱的인 이론에 대하여 橫的인 관계를 보게된 계기가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一九八四년도 全南莞島郡藥山面 漁頭里 앞 海底에 침몰된 배에 선적되었던 靑磁의 水中發掘은 新安 앞바다의 元靑磁의 발달 이래 陶磁學界의 또 하나의 개가를 올린 것이었다. 『莞島海底遺物』 보고서에

의하면, 漁頭里 앞바다에서 나온 대부분의 靑磁는 珍山里 일대 靑磁窯에서 一세기 중·후반 경에 만들어진 粗質靑磁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7)</sup>. 이것은 珍山里 유적이 한계에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綠靑磁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나 하는 학술적인 문제가 야기되었고 종래의 九?一〇세기의 綠靑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재검토 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景西洞 綠靑磁窯址에 관한 발굴보고서가 刊行되지 않았고 또 珍山里 일대의 수집 陶片도 학술적인 기초연구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景西洞과 珍山里 陶片의 눈으로 본 단순 비교 방법만으로는 결정적인 立論을 세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綠靑磁 문제의 해결은 西海岸 일대의 초기 청자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체로 中國 청자기술 도입의 배후관계 등의 규명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리라고 본다.

여하튼 綠靑磁는 九?一〇세기 초의 청자이건, 아니면 一세기 중·후반의 지방청자이건 간에 성숙한 청자로 발전하기 전의 단계임에 틀림 없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粗質의 綠靑磁가 제조될 때 白磁는 과연 생산되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학술 발굴된 景西洞 窯址로부터 白磁가 출토되었다는 보고가 없고 또 최근의 珍山里 유적에서도 白磁가 수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綠靑磁와 같은 粗質器가 생산되던 곳에서는 白磁 생산기술은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白磁는 특수한 생산품으로 별도의 생산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했던 것 같다.

결국 고려백자는 綠靑磁 혹은 粗質靑磁와는 無關하게 다른 배경하에서 발생했다고 여겨진다.

## (二) 해무리굽솥과 대접

해무리굽이란 용어는 日暉文굽을 지역한 것이며 日本에서는 「蛇目高臺」, 中國에서는 「玉壁底」라고 부르는 것으로써, 대개 완이나 대접 종류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굽형태를 말한다. 제작상으로는 굽각는 기

술이 미숙할 때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굽각기 방법이라고 하며 약 一?二, 五cm 정도의 굽이 땅에 닿는 넓은 굽을 말한다. 따라서 굽안을 도려낸 부위가 작고 굽의 높이는 비교적 낮다.

中國의 경우에는 대체로 八세기 경으로부터 一〇세기 초경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邢州窯·越州窯·定窯 등의 白磁와 靑磁에 이와 같은 형식의 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해무리굽의 靑磁나 白磁는 대체로 一〇세기 초기 제품으로 추정하는 경향이며<sup>18)</sup> 九세기 말 혹은 그 이전에 출현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sup>19)</sup>.

실제로 九?一〇세기 전반기의 中國과의 국제무역의 요로는 전통적인 항로인 楊子江 河口의 杭州灣에서 우리나라 西南海岸一帶에 古代의 교역로가 열려 있었으므로 越州窯의 기술이 이들 교역로를 통해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정착하여 일찌기 初期靑磁窯가 이곳에서 발생했으리라고 보고 있다. 특히 新羅下代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력을 기른 地方豪族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왕조를 이끌어 간 이들 豪族들은 서남해안을 그들의 정치, 경제의 중요한 근거지로 삼고 있었으므로 청자의 발생 배경에 시사하는바 크다. 대표적 인물로 호족의 예는 淸海鎮大使 長保阜(一八四二)<sup>20)</sup>, 吳越과 수교를 맺었던 後百濟의 瓶萱, 해상무역으로 경제력을 구축한 開城 호족인 高麗太祖 王建<sup>21)</sup>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中國과의 교류에서 무역품의 내용이라든지 그 형태가 어떠한지 또 무역과 관련하여 中國의 陶磁 기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했는지 하는 일들이 문헌에 明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새 왕조의 주축이 되었던 지방호족들의 활동과 결코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점이 초기청자 요지가 서남해안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더우기 九세기 중기 이래 商業陶磁로서 생산되었던 長沙銅官窯의 黃釉磁器, 越州窯靑磁 등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출토된다는 것은 통일신라 말 이래 이 지역이 정치·경제상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과 새로운 문화의 기반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2)</sup>. 이와 같은 唐末五代와

의 교류는 統一新羅末 新興세력이 일어나던 서해안 지방뿐만 아니라, 慶州 雁鴨池, 皇龍寺 등의 유적에서도 출토되는 越州窯系 해무리굽 靑磁鉢(圖 七·一·二·三)과 邢州窯系 白磁鉢(圖 三 참조) 그리고 定窯系 白磁鉢(圖 四 참조)이 있는데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무역의 상황을 보여 주는 다른 예이기도 하다. 불행히도 이들 유적지 조사에서 출토된 陶磁器片들은 『皇龍寺』, 『雁鴨池』 등의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 지금 여기서 무엇이냐고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일부 陶片 九~一〇세기 경의 唐末五代와의 도자기 교류를 좀더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이 외에도 최근에 益山 彌勒寺址 발굴에서 수습된 陶磁器片들도 寺址의 歷史를 풀어 줄 실마리가 될 뿐만 아니라 七세기 中國과의 도자기 교류 양상의 또 다른 면을 밝혀 줄 것으로 전망된다.

中國의 경우, 九~一〇세기 초에 걸쳐서 越州窯에서는 鉢, 대접, 사발, 주전자, 四耳壺, 壺 등 다양한 靑磁가 만들어지며, 특히 鉢은 外側線이 직선으로 올라가서 구연부가 약간 벌어지며 굽은 넓은 해무리굽의 특징을 이룬다. 해무리 굽편이 伴出되는 白磁窯址로는 註七에서 밝힌 河北省臨城縣邢州, 陝西省王葦窯<sup>24)</sup>, 長沙銅官窯<sup>25)</sup>, 河南省密縣窯<sup>26)</sup> 등이 있다. 또 年代 추정 가능한 해무리굽 대접중에는 七四五년으로 추정되는 白磁鉢<sup>27)</sup>(圖 八), 七三六년의 설대연대를 가진 白磁鉢<sup>28)</sup>(圖 九), 廣州建設新村에서 발견된 大中一年(八五七)의 姚氏墓로부터 출토된 백자대접<sup>29)</sup>(圖 一〇), 八五八년의 白磁鉢<sup>30)</sup>(圖 一一) 등이 있다. 이 대접들은 編年研究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당시 이와 같은 해무리굽 대접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日本,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란 등 각국에 수출되고 있었다. 예컨대 통일신라 시대의 雁鴨池로부터 출토된 刑州窯系 해무리굽 白磁鉢(圖 三 참조), 定窯系 白磁사발<sup>31)</sup>(圖 四 참조), 慶州拜里 출토의 新羅土器骨壺內 해무리굽 靑磁대접<sup>32)</sup>(圖 一一·一二·一三·四) 그리고 日本에서도 奈良藥師寺 西僧房跡出土 白磁鉢(圖 一

三一·一二), 京都西寺跡出土 白磁鉢片(圖 一四) 등의 해무리굽의, 白磁와 靑磁 그릇들이다.

이상과 같이 中國에서 八~九세기에 유행한 白磁해무리굽 鉢이 우리나라, 日本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늦어도 우리나라 경우엔 靑磁는 一〇세기 초경, 白磁는 靑磁보다 다소 늦은 一〇세기 중엽경 해무리굽의 鉢과 대접이 제작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中國의 해무리굽과 우리나라 해무리굽 양식의 시간적인 幅이란 지, 靑磁와 白磁의 발생 선후관계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것들이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해무리굽이 출토되는 고려시대 窯址들의 上限이 九세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一〇세기 초 내지 중엽경 이후에야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연구상황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 (三) 京畿道龍仁郡二東面西里 白磁窯址

해무리굽鉢과 대접편이 출토되는 窯址로는 全南康津郡大口面龍雲里, 桂栗里·沙堂里, 高興郡豆原面雲垜里, 全北高敞郡雅山面龍溪里, 鎭安郡 聖壽道通里, 忠南瑞山郡聖淵面梧沙里, 京畿道高楊郡元堂面元興里, 龍仁郡二東面西里 등이 있다. 이들 窯址 가운데서 龍仁郡二東面西里만이 白磁窯址이다. 그런데 이들 窯들이 해무리굽 陶片이 출토된다고 해서 모두 一〇세기 초·중기의 발생기의 窯들이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全南康津郡大口面龍雲里 경우에는 一九八一년도에 발굴되었지만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몇 개의 해무리굽 陶片만이 圖版으로 소개되어 一〇세기 라고 표기하고 있다<sup>33)</sup>. 또 京畿道龍仁郡二東面西里 白磁窯址 경우에는 湖巖美術館이 一九八四年 一월 一九일부터 약 一개월 간에 걸쳐서 발굴하기 시작했으나 현재까지도 그 후속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뿐만 아니라 中間報告書도 없기 때문에 그 양상 파악이 곤란하다 함은 앞서 지적했다. 다만 발굴자의 말을 인용한다면 『해무리굽 鉢片(圖 一五·一·二)』<sup>34)</sup>은 堆蹟層의 下位에 있으며 陶磁史 一般의 인 견해에 따라 一〇세기 경으로 추정하며 제작의도는 白磁였음이 分明하다.<sup>35)</sup>라

고 밝히고 있다. 全北高敞郡雅山面龍溪里窯址는 一九八三년에 발굴한 후 곧 보고서가 간행되어 주목되는 바, 그 부속 건물지에서 太平壬戌二年銘平瓦片이 출토되어 一〇二二년경에 활동하던窯일 것임을 밝힌 바 있다<sup>④</sup>。그 외에 全北鎭安郡聖壽面道通里, 忠南瑞山郡聖淵面梧沙里, 京畿道高楊郡元堂面元興里 등은 모두 지표조사만 되었고, 대체로 一〇세기로 간주하는窯址들이다<sup>⑤</sup>。

이와 같이 해무리굽이 출토되는窯址라고 해서 모두들 一〇세기경으로 일괄해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이 지적된다. 龍溪里의 경우瓦片의 銘文이기는 하나 一〇二二년이라는 年代가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西里의 白磁窯址에서도 해무리굽片은 一〇세기로 보고, 해무리굽을 제작하던 때를 이窯의 上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下限은 T.L. Dating Method 分析(加熱發光分析)<sup>⑥</sup> 실험 결과 一三二〇, 一三三〇, 一三四〇년이라는 年代가 추출되고 있기 때문에<sup>⑦</sup> 一四세기 전 반경까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西里의 백자요지는 一〇세기경? 一四세기까지 약 四〇〇여년이나 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필자의 의견으로는窯址 주변의 堆積層이나 陶片의 성격으로 보아 四〇〇여년 간이나 제작활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西里의 해무리굽 年代가 一〇세기 보다 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T.L. Dating Method 分析실험에 상당한 오차가 있든지, 또는 二〇〇여년간 이상 생산을 중단하였다가 同一窯에서 다시 후기백자를 제작했든지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발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어서 추론적인 언급조차 어렵다. 다만 해무리굽편의 존재는 初期窯址임을 시사할 뿐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一九八七年二月의 고려백자에 관한 석사논문이다. 이 논문을 쓴 金載悅은 西里백자요지 발굴 책임자였고 여기서 출토된 白磁陶片이 논문에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었다<sup>⑧</sup>。그러므로 보고서가 간행되지 아니한 현시점에서 西里백자의 성격을 규명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므로써 西里고려백자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곳의 백자는 胎土의 질에 따라 精細質白磁와 細沙粒이 섞인 粗質白磁로 크게 분류하며 이러한 태토질의 변화는 一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兩大分된다<sup>⑨</sup>고 한다. 靚을 기준으로 할 때는 前者는 해무리굽계 靚 시기가 一〇세기? 一세기 중엽경에 해당되며 後者는 粗質白磁期로 一세기 후반의 제작품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무리굽계 靚은 굽바닥폭이 줄어들어가는 해무리굽의 굽바닥폭에 따라 모두 四 유형으로 분류하고<sup>⑩</sup> 있으며 굽바닥폭이 줄어들어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軟質에서 硬質로 발전하며 또한 연두색조에서 綠色이나 靑色이 없어지는 백자로 이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굽바닥 면에 의하면(圖一六) I·II式에서는 唐代風格을 보이나 III式에서는 차츰 고려화하며 IV式에서는 다시 宋代陶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靚 이외에도 납작접시, 鉢形접시, 花形접시, 油瓶, 壺, 기타 등 一세기 중엽 이전에 여러가지 기형이 제작되고 있다.

粗質白磁期の 白磁片들은 비교적 정교한 해무리굽 시기의 것, 靑磁기형의 영향을 받으면서 釉胎가 조잡해져 완전 지방백자화해 가는 시기의 것, 그리고 조선백자에 가까운 시기의 것 등 모두 三종류로 분류된다. (圖一七) 이들의 유조는 녹색이 감도는 투명도가 높은 유약이 얇게 시유되며 그릇 외면에 물레자국이 뚜렷하고 하부는 잦아낸 자국이 보인다. 靚종류는 굽바닥폭이 좁아지고 오목굽이 나타난다. 작은 종지종류가 늘어나며 버루, 향로, 타호 등의 기형이 있고 鐵畫白磁片이 수집되는 것이 一세기 중엽이후로 간주되는 粗質白磁期の 특징이라고 하며 粗質白磁期の 下限에 대해서는 뚜렷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西里의 고려백자 해무리굽요지, 그리고 白磁片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龍溪里의 太平壬戌銘平瓦片(一〇二二) 등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 白磁해무리굽의 양식은 대체로 一〇세기 어느 때로부터 시작하여 一세기 전반경까지 만들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國立中央博物館 소장의 二개의 해무리굽白磁靚<sup>⑪</sup>(圖一八A·

B)은 그 생산지는 알 수 없으나 크게 보아 一〇세기 중엽 一 二세기 전반기 어느 때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西里白磁窯址의 출토편들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까 싶다. 왜냐하면 해무리굽 편들이 출토되는 청자가마에서는 백자 해무리굽편이 수집된 바 없기 때문이다. 이 甞의 특징은 해무리굽이며 內底를 동글게 깎아 냈고 측면선은 직선이지만 내만되었다. 淡靑의 유약은 水裂이 있으며 굽 밑은 유약을 긁어내고 둥근 耐火土받침의 흔적이 四곳에 보인다.

해무리굽의 그릇은 대개 無文이 많으며 해무리굽편과 함께 출토되는 무늬가 있는 대접일 경우에는 陰刻技法의 앵무문, 연판문, 그리고 陽刻技法의 연판문과 같은 무늬가 새겨지고 있으므로 이들 무늬는 해무리굽 양식과 함께 初期的인 무늬로 간주된다. 西里窯址에서도 白磁陰刻 앵무문, 白磁陰刻 연판문, 白磁陰刻 앵무문대접(圖一九一·二)이 있다.

#### (四) 淳化四年銘壺

一〇세기 후반의 가장 확실한 編年資料로는 淳化四年(九九三)에 제작된 梨大博物館 소장의 「淳化四年銘壺」(圖二〇一·二)가 있다. 굽 밑에 새겨진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내용에서 하면이 향아리는 九九三년에 王建의 사당 제 一실에서 쓰기 위해 享器匠 崔吉會가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향아리는 당시를 대표하는 향아리임에 틀림없다.

「淳化四年銘壺」는 一九七〇년 이전까지만 해도 선구적인 청자로서 이해되었으나, 이러한 이유는 野守健의 글에서 비롯하였다<sup>46)</sup>. 그러나 최근에는 선구적인 청자가 아니라 『白磁』라고 보는 견해를 확정짓는 의견이 명문화 되고 있고<sup>47)</sup> 그 명칭에서도 『白磁壺』로써 明記하고 있다<sup>48)</sup> 이와 같은 「淳化四年銘壺」의 白磁說은 최근에 호암미술관이 발표한 龍仁郡二東西里의 白磁窯址가 一九六八年경 학계에 알려지면서 부터라 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西里出土白磁片과 「淳化四年銘壺」와는 軟質의

미색, 淡褐 혹은 淡綠을 띤 釉水裂, 白土와 釉藥의 밀착도가 낮은 점등 상당히 유사한 공통점을 서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하였으며 그 후 글로써 분명히 하였다<sup>49)</sup>. 이것은 고려백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던져준 셈이다. 그러나 「淳化四年銘壺」가 西里白磁와 유사하므로 白磁라는 의견을 발표하고 또 이러한 의견을 일부에서 받아들 이면서도 양자간의 정확한 정밀 연구는 없다. 단지 본격적인 白磁窯가 一〇세기 경에 西里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淳化四年銘壺」가 白磁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가 객관적인 혹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西里白磁窯址의 발굴이 마무리 된 후에야 그 관계가 보다 확실해 지리라고 본다.

한편, 「淳化四年銘壺」의 白磁說이 명문화된 다음에 三上次男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의 野守健이 靑磁의 선구라고 본 것과 崔淳雨·鄭良謨 양인이 白磁라고 한 견해에 대해서, 慶州 拜里출토의 長沙銅官窯 제품의 壺(圖二一一·二·三·四)에 비유하여 黃釉 제품으로 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sup>50)</sup>. 그 이유로는 낮은 燒成온도, 廣口長頸筒形の 형태, 黃色釉의 잔빙열 등은 「淳化四年銘壺」의 원형이 長沙銅官窯 제품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淳化四年銘壺」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나, 여하튼 白磁說을 일단 인정한다면 高麗白磁의 발생은 상술한 바와 같이 대체로 一〇세기라고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겠으며, 淳化四年이 九九三년이 고 또한 미숙한 시유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一〇세기 중엽경 생산되기 시작했으나 九九三년 까지도 세련된 양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해무리굽을 伴出하는 西里白磁窯址와 「淳化四年銘壺」와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때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淳化四年銘壺」를 실전하여 관찰하면 釉胎에서 곧 白磁라고 수증하기 어려운 黃·褐·綠色의 유약이 흘러 내렸고 전체 색조도 西里의 白磁片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器形의 陶片

이 一〇세기 말경의 요지로 간주되는 곳에서는 아직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가 요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綠靑磁, 해무리굽盥과 대접, 西里白磁窯址, 「淳化四年銘壺」 등의 문제를 통해 볼 때, 모두가 미해결된 부분으로 남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은 파악된다. 즉 高麗白磁의 발생은 청자의 발생과 거의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고 綠靑磁와 같은 粗質의 청자요에서는 제작되지 않았으며, 白磁가마는 청자가마와는 별도로 조성되어 西里 같은 곳에서 白磁를 主宗으로 생산하고 있었던 窯址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고려백자의 발생시기는 해무리굽 양식과의 연관에서도 대체로 一〇세기 중엽경 이후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 Ⅲ、高麗白磁의 發展

高麗白磁가 一〇세기 중엽경 발생하여 어떻게 그 절정을 이루는가 하는 단계적인 발달과정은 밝힐 수 없지만 청자와 마찬가지로 一・二・三 세기가 그 절정기이다. 그러므로 一・二 세기를 기준으로 할 때 一 세기 후반은 절정기를 향해 발전하여 가는 때요, 一 세기 후반은 대내외적인 여타가지 문제로 표면기법과 형태에서 차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때이다. 알려진 名品 白磁에 의하면 一 세기 후반으로 간주되는 作品은 매우 드문 반면에 一 세기 후반으로부터 一 세기 전반에 걸쳐서 는 여타가지 기형의 백자와 全北扶安郡保安面柳川里 출토의 白磁와 白磁象嵌 陶片들이 있어 대체적인 양상이 파악된다. 따라서 一 세기 후반 一 세기 전반에 걸쳐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名品과 陶片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一) 一 세기 후반 一 세기 초엽

一 세기 후반 一 세기 초엽으로 추정하는 것들이 모두 확실한 편년자료나 문헌기록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작시기에 대한 추정

은 釉・胎・器形・무늬・굽의 형식 등의 양식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 하나 하나를 들어 열거하기로 한다.

白磁사발<sup>㉔</sup>(圖二二)은 胎土가 砂質이 많이 섞였으며 기형은 정제된 원숙함을 보인다. 軟質이며 靑白釉의 白磁釉가 시유되었고 脫釉된 부분이 있다. 內底에는 넓은 圓心이 있고 口緣에는 一 줄의 陰刻線이 있으며 굽안은 無釉이고 耐火土가 섞인 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대체로 一 세기 중엽 이후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sup>㉕</sup>. 이와 같은 계열에는 입지름 一五六cm 되는 白磁盥(圖二三・二四)이 있다. 이외에도 二개의 백자주름문합<sup>㉖</sup>(圖二四、二五)이 있는데 이들은 상아빛의 白色을 보이며 硃石반침의 흔적이 있다.

江原道三陟郡北坪邑三和里 高麗古墳 출토 일괄유물 중에는 銘文資料는 伴出되지 않았으나 一 세기 후반 一 세기로 추정되고 있는<sup>㉗</sup> 일괄유물 중에는 象嵌靑磁는 없고 古格의 청자타구, 靑磁陽刻鑿文香爐, 貼花文灰陶器, 靑磁陽刻雲鶴文대접, 靑磁陽刻蓮瓣文대접, 靑磁주전자, 宋白磁 등과 더불어 高麗白磁대접, 白磁접시 一 점, 白磁淨瓶 二 점, 白磁鐵繪唐草文瓶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들 白磁들은 胎土와 釉藥이 밀착되지 않아 脫落이 심하며 胎土는 軟質의 석고와 비슷하고 釉色은 暗綠을 띠며 빙얼이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도록 하겠다.

白磁盥(圖二六・二七)은 一三五cm의 입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해무리굽 양식의 여운을 보이고 內底에는 圓刻線이 있으며 구연부는 넓게 外反되었고 一 줄의 線文이 陰刻되어 있다. 耀州窯나 臨汝窯의 대접과 흡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sup>㉘</sup> 제작시기는 一 세기 후반 一 세기 초로 추정한다.

二點의 白磁淨瓶<sup>㉙</sup>(圖二七), (圖二八)은 一 세기의 전형적인 靑磁淨瓶(圖二九)과는 양식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목부분에 접시 같은 돌출부라든지, 물이 나오는 주둥이의 돌출형태 등의 만듦새는 古式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古式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는 淨瓶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형의 병이 있다. 즉 一九三三년에 京畿道楊平郡梅月里 高麗古墳

에서 출토된 靑磁瓶(圖三〇)은 元豐通寶(一〇七八—一〇八四年)와 함께 일괄유물로 발견되었으므로 대체로 一세기 후반의 제품으로 보는데 釉調는 灰靑을 띠고 釉胎는 거칠며 굽에는 모래비집반점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三和里 출토의 淨瓶과 梅月里 출토 병과의 관계에서 三和里 淨瓶은 대체로 一세기 후반경의 제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三和里古墳 출토품으로는 白磁鐵繪草文梅瓶(圖三一)이 주목된다. 이 梅瓶은 목이 있어 우뚝한 주둥이라든지, 어깨와 밑부분의 굴곡이 없는 곡선 등에서 古式的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문양은 병의 앞뒤와 어깨부분에 唐草折枝를 하나씩 그리고, 유약의 발색은 불량하다. 이 상에서 살펴 온 三和里 출토의 白磁들은 上品白磁라기 보다는 地方窯産인 民需品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三和里 출토 白磁와 유대가 유사한 것으로는 一九六六년에 京畿道廣州郡 上山谷里에서 출토된 白磁素文淨瓶과 白磁素文缸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一세기 후반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중의 하나는 白磁鐵繪草文瓶(圖三二)이 있다. 석고질감을 나타내는 軟質系 白磁이며 잔비열이 있는 淡靑白磁釉가 얇게 씌워져 있고 胎土는 모래가 섞여있는 粗質이며 이 시대 특징인 脫釉현상이 보이고 또한 병 전후의 커다란 草文은 五代北宋初의 어운으로 보며 古式的 廣口의 형태도 주목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一세기 후반~二세기 초에 걸쳐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고려백자의 특징은 석고와 같은 軟質이며 유약은 하얀 투명한 연한미색을 띠고 胎土와의 밀착이 잘 안되어 유약의 유리질화한 부분이 태토로부터 탈락되는 현상 등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 (二) 一二期 전반기

二세기는 청자의 황금기이다. 一一七〇년에 武臣政變이 일어나지만 仁宗, 毅宗, 明宗 年間은 文臣貴族文化의 절정기이며 고려청자가 이것을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一二期는 年代推定이 가능한 자료들과 문헌기록들이 있어 편년설정이 어느정도 가능한 시대

이다.

一二期 전반기를 대표하는 청자로는 仁宗(一一三—一一四六) 長陵에서 출토되었다는 靑磁瓜形瓶과 方形台가 있다. 盜掘에 의해 수습된 자료이지만 仁宗의 謚冊과 함께 나온 일괄유물이므로 仁宗 長陵의 출토 물임은 확실하다. 瓜形瓶이나 方形台는 그 형태가 中國의 기형에서 벗어나 고려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 변모한 것은 아니지만 翡色의 아름다운 청색과 氷裂 없는 차분한 釉色을 나타낸다는 中國의 宋靑磁도 이를 따르지 못하였다. 一一三三년에 고려에 온 宋使節中의 한 사람인 徐兢이 쓴 『宣化奉使高麗圖經』의 器皿條에 陶尊을 설명하는 곳에서 『陶器色之靑者 麗人謂之翡色:』<sup>60</sup>이라고 하여 청자의 색을 고려사람들은 翡色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陶爐를 설명하는 곳에서 『俊貌出香亦翡色也 上爲蹲獸 下有仰蓮以承之 諸器惟此物最精絕 其餘則越州古秘色汝州新窰器 大槩相類』<sup>61</sup>라고 하여 산예출향(사자꼴을 한 향로)이 翡色이며 여러 그릇중에서 가장 精絶하다고 강조했고 그 나머지인 즉 越州地方에서 만든 옛날의 秘色 또는 汝州 지방의 새로운 그릇의 색과 대개 서로 유사하다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徐兢의 안목으로는 宋靑磁의 색과 다른 아름다운 비취색의 靑磁를 翡色이라고 표기하여 中國인이 말하는 秘色이라고 한 푸른색과는 구별하였고, 역시 고려의 翡色靑磁산예출향을 최정절하다고 칭송하고 있다. 현재 사자형의 향로가 여러 점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향로는 徐兢이 와서 본 산예출향과 거의 같은 시기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一二期 전반기는 象嵌靑磁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데 후술하겠지만 白磁象形으로는 호암미술관 소장 의 오리형향로(圖三六 참조)가 있다. 또한 仁宗 長陵 출토의 瓜形瓶과 方形臺는 徐兢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시기의 제작품임을 알 수 있으나 비열 없는 翡色靑磁야 말로 비열 없는 白磁의 제작을 시사하여 준다. 따라서 순청자가 최고의 수준에 달했던 一二期 전반기에는 순백자의 제작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었음은 쉽게 이해된다. 徐兢은 白磁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高麗圖經』 陶尊條에 다음과 같

은 내용이 있다.

陶器色之青者麗人謂之翡色 近年以來制作工巧 色澤尤佳 酒尊之狀如瓜 上有小蓋 面爲荷花 伏鴨之形 復能作盃·椀·瓶·瓶·湯·盞 皆竊放定器制度 故略而不圖以酒尊異於他器 特著之。

陶器의 색이 푸른 것을 고려사람들은翡色이라고 말한다고 하고 참외 모양의 술병에 대해서 특기한 다음, 완, 접시, 술잔, 사발, 화병, 탕잔을 만들 수 있다고 열거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定窯의 制度(定器制度)를 모방하고 있으므로 그림은 생략하고 그리지 않았고 참외 모양의 술병만이 특이하여 그림으로 그린다고 기록하고 있다. 定器制度라 함은 틀림없이 河北省 定縣 지방에서 제작된 一〇세기 이후 中國 白磁를 대표하는 定窯 그릇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되니 이는 바로 高麗白磁를 두고 한 것임에 틀림없다。 一・二・三년 경의 고려백자는 定窯白磁와 거의 같은 수준을 지닌 완, 접시, 술잔, 사발, 화병, 탕잔 등이 제작되고 있었음을 말하며 삼감청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象嵌白磁는 이 당시 제작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므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려백자 중에는 定窯白磁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유사한 백자가 있는데 대체로 이들을 일컫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白磁陽刻蓮唐草文(圖三三三·一·二)는 굽이 없는 낮은 접시로써 器壁이 얇고 口緣이 外反되어 날렵해 보인다. 문양은 押出陽刻 기법으로 外面에는 무늬가 없고 內面에는 中央에 蓮唐草와 如意頭文, 구연에는 이중의 花文이 있다. 유약은 얇게 시유되고 약간 미세한 띠는 곳이 있으며 잔 빙열이 있다. 이와 유사한 陶片이 康津郡大口面沙堂里에서 수 집된 바 있다고 한다。

白磁陽刻蓮瓣文大(圖三四一·二)은 內面은 연판문을 押出陽刻 하고 구연에는 문양선을 음각해서 押出의 두딘 무늬를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고 外面은 無文이다.

白磁陰刻蓮花文長頸瓶(圖三五)은 옆은 청색을 띠는 釉調에 미세한 빙열이 있고 脫釉된 곳이 있어 一・二세기 전반의 특징을 보인다. 陰刻된

연판문은 잎맥 표현까지 나타낸 정교한 시문 양식을 보이며 기형은 목이 가늘고 胴部가 팽배하고 굽밑에는 五곳에 耐火土받침 흔적이 있다.

白磁鴨形香爐(圖三三六)는 中國의 인 맛을 풍겨 中國作品일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으나 유약처리 솜씨, 胴體부분의 표현, 뚜껑과 접합되는 부분의 無釉 등은 고려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고려시대 작품으로의 견이 놓아진 향로이다. 목과 몸이 길고 가늘며 먼곳을 바라보며 물위에 떠 있는 듯한 형상이다. 꼬리는 三段의 陽刻기법이고 꼬리깃털은 음각선으로 표시했다. 淡靑의 白磁釉가 쇠워졌고 가는 빙열이 있는 부드러운 質感을 보인다.

白磁梅瓶(圖三七)은 석고질과 같은 軟質이며 淡靑色을 띠는 유약이 쇠워지고 가는 빙열이 있다. 굽밑에는 유약이 없고 白色耐火土받침 받침 흔적이 一・二곳에 남아 있다. 뚜껑 안에는 硃石받침의 흔적이 三곳 있으며 器形은 어깨의 팽만간이 약하고 底部線은 발전함이 없이 훌쭉하게 빠졌다. 이와 같은 기형의 매병은 대체로 一・二세기 초기의 作品에 흔히 보이며 宋梅瓶의 형태를 많이 닮고 있다.

白磁陽刻牡丹文梅瓶(圖三八)의 기형은 어깨가 팽만하고 유려한 선이 흘러 底部에서 약간 反轉을 보이는 一・二세기 중엽의 전형적인 매병이다. 문양은 전체에 牡丹唐草文이 陽刻되었으므로 牡丹꽃과 잎맥까지도 음각으로 나타냈으며 底部에는 陽刻의 연판문과 陰刻 雲文帶의 二段 문양구성을 보인다. 유약의 용융상태가 나빠 기면이 고르지 못하고 脫釉된 부분도 있다. 굽에는 七곳에 모래 섞인 내화토비집받침의 흔적이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접시, 대접, 향로, 매병, 병은 대체로 一・二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淡靑釉가 시유되고 가는 빙열이 있으며 태토는 석고질과 같은 軟質이고 굽밑이나 뚜껑의 접합 부위 같은 곳에는 유약을 흘려냈고 굽에는 모래가 섞인 耐火土를 빚어 받침을 하고 번조되고 있다. 문양은 陽刻, 陰刻 押出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上品의 純靑磁는 빙열이 없어

두텁게 시유되고 깊고 푸른 아름다운 翡色을 낸데 성공한 반면, 白磁는 태토와 유약의 밀착이 잘안되어 탈락 현상을 많이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백자태토와 백자 유약의 수축관계가 청자보다 민감했던 것 같다.

### (三) 一·二세기 중엽 ~ 一·三세기 전반

一·二세기 중엽경 부터는 象嵌技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陶磁器에 象嵌技法의 적용은 고려도자에서 가장 獨創的인 특징이다. 象嵌技法은 나전칠기 혹은 金屬器의 入絲技法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靑磁에 상감기법이 언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나 유물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기록과 유물을 통해서 대체적인 推論은 가능하다.

徐兢의 『高麗圖經』에 靑磁에 관한 기록에는 象嵌靑磁을 지칭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徐兢이 왔던 一一二三年 경에는 상감청자는 제작되지 않았던 것 같다. 또 一一四六年에 歿한 仁宗의 長陵으로부터 나온 일괄유물에는 象嵌靑磁가 한 점도 없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盜掘에 의한 수습품이기 때문에 상감청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알려진 長陵 출토의 靑磁는 모두 素文靑磁임을 미루어 보아 상감청자는 一一二三 ~ 一一四六年 간에 제작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 같다. 그런데 毅宗 一三年(一一五九)에 죽은 文公裕의 墓로부터는 상감기법을 보여주는 「靑磁象嵌寶相唐草文대접」(圖 三九·一·二)이 있다. 그러므로 상감청자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된다. 寶相唐草文의 세련된 솜씨라든지, 안정된 문양구도의 기법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연마기간을 거친 후에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감기법은 仁宗이 죽은 一一四六년 경으로부터 一一五九년 사이, 이를테면 一·二세기 중엽경 어느 때에 발생하여 一一五九년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象嵌技法은 靑磁, 白磁에 주로 사용된 施文技法이며 一三, 一四세기를 거쳐 粉靑沙器로 연

결되며, 한편으로는 一五세기 중엽경 까지 上品의 朝鮮白磁의 表面장식무늬로 까지 적용되다가 一五세기 후반 靑畫白磁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상감기법은 도자기의 문양기법으로는 종말을 고하고 만다. 실제로 朝鮮時代의 象嵌白磁를 굽던 窯址는 京畿道 廣州의 初期白磁 窯址로서 樊川里·牛山里·武甲里·鶴東里 등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一·二세기 중엽경 발생하여 一五세기 후반에 소멸하는 상감기법은 고려백자에서도 一·二세기 중엽 ~ 一·三세기 전반에 절정을 이루고 一·三세기 후반 이후로는 거의 제작되지 않는 듯 하다.

一·二세기 중엽 ~ 一·三세기 전반경의 高麗象嵌白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白磁象嵌牡丹柳蘆文花瓶(圖 四〇·一·二)은 硬質의 胎土에 二重象嵌技法으로 시문되고 옅은 靑色 투명유에 가는 빙얼이 있으며 밑바닥에는 오래 섞인 耐火土비집발침의 흔적이 七곳에 남아 있다. 기형은 당나라 도읍이며 縱으로 器面을 六등분 하고 구획된 六곳 능화형 안에는 청자 태토로 메꾸고 이 안에 牡丹·柳鳥·蘆鳥를 흑백상감하여 이중 상감의 특이한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上·下段에는 각각 연관문이 상감되었는데 특히 下段의 연관문의 가장자리 문양선에서 陽刻의 白土線을 둘러싸이 색적인 기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청자태토를 상감부위에 감입한 경우로는 후술할 全北扶安郡保安面柳川里 출토 白磁象嵌片(圖 六一참조)이 있어 양자간의 관계가 주목된다.

白磁象嵌蒲柳水禽文淨瓶(圖 四二)은 기형이 정제되고 釉胎가 세련되어 一·二세기의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어깨 부분에 연관문이 상감되어 있다.

白磁象嵌寶相唐草文盒(圖 四二)은 화장품용기로 생각되며 사실적인 寶相唐草文이 상감되고 淡靑의 투명유가 두텁게 시유되었다. 빙얼이 있으며 굽에는 三개의 硃石반침 흔적이 남아있고 뚜껑과 몸의 접합 부분에는 고운 내화토비집반침 흔적이 六곳 보인다.

白磁象嵌菊花文盒(圖 四三)은 香奩의 일종으로 뚜껑 가운데에는 양

식화된菊花 한 가지가 상감되었는데 잎의 묘사는 비교적 사실적이다. 淡褐色의 袖가 시유되었고 斜線의 잔빙열이 있다. 굽에는 가는 모래와 하얀 耐火土를 섞어 빚은 반침이 곳곳에 남아 있고 뚜껑의 접합 부분에는 굽과 같은 비점반침의 흔적이 보인다.

象嵌技法 외에 鐵繪技法을 사용한 白磁鐵繪草花瓶(圖四四)이 있다. 기형은 전형적인 十二세기 매병에 비해 선의 흐름이 둔탁하나 구연부는 고려매병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문양은 어깨에 磁州窯 계통의 菊花瓣文이 아무렇게나 시문되었고 그 아래에는 唐草花文이 소박하게 시문되었다. 기면이 고르지 못하며 康津이나 扶安에서 생산된 것 같지 않다.

이상에서 十二세기 중엽~十三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상감백자와 철회백자를 살펴왔다. 고려상감백자는 상감청자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난 특징은 없으나 純白磁 보다는 비교적 硬質이며 유약의 탈락현상도 훨씬 줄어들고 있음이 감지된다.

지금까지 고려백자의 발생으로 부터 十三세기 전반경까지의 고려백자의 양상을 名品資料를 중심으로 살펴왔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학술조사된 것이 아니므로 제작지는 전혀 알 길이 없고 다만 초기에는 龍仁郡 二東面西里 그리고 十一세기 이후로는 康津과 扶安 지방에서 생산되었으리라는 막연한 추정 외에는 현단계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도물품이긴 하나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이 소장한 全北扶安郡 保安面柳川里 출토의 다양한 白磁片들을 살펴봄으로써 十二세기 중엽~十三세기 전반경의 백자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四) 高麗白磁陶片

高麗白磁陶片은 全羅南道康津郡大口面沙堂里와 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柳川里 지방의 것이 대표이다. 沙堂里 陶片은 一九六五년부터 國立中央博物館이 十여년간 年次發掘한 것이며 柳川里 陶片은 日政때 井邑에 살던 深田泰壽가 柳川里 靑磁窯址를 도굴하여 私藏하여 오던 것을 一九五八년에 梨大博物館에서 그 일부를 구입하여 복원 전시함으로써 밝

혀진 것이다。 이들 陶片은 窯址 出土品이 분명하나 어느 것이나 編年資料는 못된다. 그러나 十二·十三세기의 기형, 무늬, 제작기법 등을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자료구실을 하므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沙堂里의 高麗白磁陶片은 학계에 정식 보고된 바는 없고 다만 圖版으로서 七개의 대표적인 陶片(圖四五)만이 공개되었으며 圖版의 설명에 의하면 十一세기말~十二세기 전반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들 陶片들은 대접, 盥, 주름분할, 음각문대접 등인데 象嵌白磁는 한 점도 없다. 이들 素文白磁들은 軟質의 미세한 빙열이 있으며 耐火土에 모래를 섞어 빚은 반침을 굽에 사용하고 있는 등 釉調, 胎土, 제작기법, 무늬로 보아 역시 十二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沙堂里 窯址로부터는 素文, 象嵌, 象形 등 다양한 靑磁片이 출토되는 반면, 白磁의 生産에서는 象嵌白磁가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象嵌技法이 적용된 十二세기 중엽이후로는 白磁의 生産量은 크게 줄어들었던 것 같다. 이러한 沙堂里의 白磁生産의 상황에 비해 柳川里 경우에는 陰刻, 象嵌 등의 다양한 기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감백자에서 특히 두드러진 세련된 특징을 보인다. 그러면 柳川里 고려백자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梅瓶—無文, 陰刻, 陽刻技法이 두루 발견되나 象嵌片은 없다. 白磁陰刻蓮·牡丹文梅瓶(圖四六)은 풍만한 어깨와 약간 반전하는 底部를 가진 기형으로 전형적인 十二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보인다. 器壁이 매우 얇아(약 〇.五~〇.八cm의 두께)가볍고 유연한 느낌을 주며 유약은 얇게 시유되어 脫釉된 부분이 있고 유약이 물린 곳은 파르스름한 빛을 띤다. 무늬는 蓮·牡丹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白磁無文梅瓶은 口緣을 예리하게 깎아 기술의 발달을 짐작케 한다(圖四七).

② 瓶—白磁陰刻蓮牡丹文瓶(圖四八—一·二)은 脫釉현상이 보이고 梅瓶보다는 기벽이 두텁다. 굽안까지 시유되었고 모래섞인 耐火土비점 반침을 곳곳에 놓고 구웠고 기형 역시 十二세기 유려한 청자병의 모습

과 거의 같으며 蓮·牡丹文이 음각되었다.

③ 대접—白磁無文대접(圖 四九—一·二)은 바닥이 넓으며 굽이 없는 대접으로 內外口緣에 음각선이 한 줄 있고 전체에 미세한 빙열이 있으며 磁石받침을 받쳐 구었다.

④ 잔—원통형에 가까운 蓮瓣文이 음·양각된 잔(圖 五〇)과 둥근 모양의 陰刻잔(圖 五一—一·二의) 두 종류가 있다. 陰陽刻된 연판문 잔은 間葉이 있는 仰蓮의 진연판이 시문되고 陰刻잔은 雷文과 菊花折枝文이 음각되었다. 모두 빙열이 있고 굽에는 磁石받침과 내화토비집받침의 흔적이 있다.

⑤ 臺台—白磁陰刻托臺台(圖 五二)는 가운데가 관통된 托臺台로 口緣과 굽주위에 雷文이, 전 주위에는 菊花折枝文이 각각 음각되었고 빙열이 많으며 유약은 얇게 시유되었다.

⑥ 承盤—白磁陰刻牡丹文承盤(圖 五三)은 높은 전접시 모양의 우묵한 승반으로써 전에는 唐草文、內側面에는 菊花折枝文、內底中央에는 牡丹文이 각각 음각되었고 脫袖된 곳도 있으나 정교한 모습이다.

⑦ 접시—입이 벌어진 굽이 없는 접시이다. 內側面에는 蓮唐草文이 陽刻되었고 脫袖가 심하며 청색이 도는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었다(圖 五四). 접시 중에는 굽 밑에 「志」銘이 음각된 것이 있다(圖 五五).

⑧ 향로—白磁陰刻향로(圖 五六)는 동물형 다리가 셋 있는 넓은 천을 가진 향로로 파도문과 雷文이 음각되었고 망상의 잔빙열이 있으며 脫袖현상이 있다.

⑨ 뚜껑—뚜껑 종류는 梅瓶、罌、잔, 합 등 매우 다양하며 시문기법은 음각이 많다. 예를들면 蓮瓣이 음각되고 연봉오리 같은 꼭지를 가지고 있는 罌뚜껑(圖 五七)、牡丹·蓮唐草·雷文이 시문되고 망상의 빙열이 있는 梅瓶뚜껑(圖 五八)、上面에 牡丹文과 鳳凰文, 측면에 雷文 사이에 雲文、如意頭文、唐草文과 같은 여러 무늬를 가득 음각한 대형 합뚜껑(圖 五九) 등은 陰刻技法의 뚜껑들이다. 그런데 白磁陰刻象嵌菊花文뚜껑(圖 六〇)은 胎土가 단단하며 투명한 유약이 빙열없이 잘

시유되었고 약간의 靑色을 띤 향아리 뚜껑으로써 뚜껑 끝에는 雷文이 음각되고 상면에는 靑磁胎土로 菊花가 상감되어 무늬는 灰色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⑩ 盒—합은 특수한 용도에 쓰인 것으로 생겨지며 합의 전체 모습은 파악되지 않으나 灰·黑 象嵌의 뚜껑과 몸체의 부분 파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白磁象嵌牡丹文盒뚜껑(圖 六一)은 측면 일부와 상면 外周 일부만 남아 있는 대형합 뚜껑으로 側面上·下에 雷文、위 斜面에 牡丹唐草文、上面外周에 如意頭文이 정교하게 黑象嵌되었고 빙열이 있으며 뚜껑의 턱진 부분에 耐火土 비집받침을 받쳐 굳고 있다. 이외에도 합뚜껑편으로 牡丹、雙鳳文、菊花唐草文、그리고 如意頭文을 흑상감하였는데 菊花唐草의 줄기와 잎은 靑磁土로 상감하여 黑色과 灰色의 대비가 자연스럽다(圖 六二). 盒片으로는 如意頭文과 雷文이 흑상감된 것이 있다(圖 六三). 축이 있는 부분에 모래 섞인 耐火土 비집받침을 받쳐 굳고 있으며 빙열이 약간 있으나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⑪ 장구—白磁象嵌장구(圖 六四)는 파편이라서 主文樣은 알 수 없으나 唐草文·珠文이 赭土와 靑磁土로 상감되었다. 빙열이 없고 비교적 경질의 태도가 유약과 밀착이 잘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十一종류의 柳川里 白磁片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器形은 매병, 병, 대접, 완, 탁잔대, 승반, 접시, 향로, 합, 뚜껑, 장구 등의 다양한 기형과, 표면기법으로는 無文、陰刻、陽刻、象嵌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胎土는 軟質과 硬質의 두 종류가 보이며 硬質의 경우에는 대체로 象嵌白磁인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一一三三년 전후한 이를테면 徐兢이 고려에 왔을 당시에는 象嵌技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그 형태나 특징에서 定窯계통의 백자와 대동소이 했음이 『：溫樸栝脂花甌湯盞皆竊放定器制度 故略而不圖』라는 기록에서 이미 살펴 본 바이다. 따라서 陰刻、陽刻 혹은 無文白磁는 대개가 十二세기 중엽 이후로 내려오지 않으며 그 양

상도 釉藥이 탈락되는 軟質白磁 종류가 많은 것 같다. 유약이 탈락되는 軟質의 상태로는 다른 성질의 赭土나 靑磁土를 嵌入하여 시문하는 데는 제작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靑磁에 상감기법을 도입되는 반면, 白磁는 軟質系 白磁에서 벗어나 硬質系 白磁의 제작을 추구했음이 柳川里 陶片을 통하여서도 파악된다. 특히 장구편들은 유빙열 없이 유약과 태토의 밀착도가 높으며 경질백자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柳川里의 象嵌白磁와 陰·陽刻 白磁와의 제작시기가 同一時期나 아니면 시기적인 차이가 있느냐 라는 문제에서 그 근거를 밝힐 자료는 없다. 그러나 제작기법, 釉, 胎의 변화, 기형의 특징, 상감기법의 발생시기 등을 고려할 때 상감백자는 陰·陽刻 혹은 素文白磁 보다는 다소 뒤에 제작된, 즉 十二세기 후반 十三세기 전반 경의 제작품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상감이 아닌 것들은 十二세기 전반 이전이고 상감백자는 十二세기 후반 이후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추론에는 상감백자가 제작될 때 陰刻, 陽刻, 素文白磁들이 전혀 제작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 IV, 朝鮮白磁에로의 移行

柳川里 출토 陶片을 통해 十二세기 중엽 이후로부터 十三세기 전반에 걸친 象嵌白磁의 양상을 살펴왔다. 그러나 이들이 編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또 十三세기 후반~十四세기의 양상도 편년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통적으로 파악할 길이 없다.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十二세기~十三세기 경의 陰刻白磁나 象嵌白磁는 靑磁와 병행해서 만들어 진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十三세기 후반 이후 고려가 멸망하기 까지 청자의 생산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컨대 때병·대접의 기형변화, 扁瓶의 출현, 조잡한 무늬, 대접내저 중앙에 干支銘 등과 같은 변화가 보인다. 상감백자는 점차 타락 일로를 걷게 되고

고려백자는 생산이 거의 중단되었던 듯 하다. 이러한 원인은 재론의 여지도 없이 정치의 문란, 경제적인 파탄, 외교상의 혼선 등의 여러 요인 때문에 전성기인 十二세기 백자나 청자와 같은 발달한 기술을 기대할 수 없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中國으로부터 白磁나 靑磁白磁의 기술을 받아들이기에도 여러가지 여진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다. 특히 새 왕조의 주축이었던 新進士大夫들의 등장도 十三세기 후반~十四세기 중엽경까지는 아직 공예기술을 변형시키지 못한 사회문화사적인 세력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白磁나 靑磁白磁에 대한 욕구는 中國製品의 사용으로 만족했으리라고 보나 그 실상 역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高麗末期의 窯業은 새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자체내에서의 생산기술의 향상은 거의 없었고 康津과 扶安 지방에 고정되었던 官窯는 기능이지의 마비되면서 전문 匠人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一·二세기 전성기의 고려청자 요지가 전국에서 골고루 발전되지 않는 반면에, 一·四세기의 퇴락한 상감청자 요지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거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현상으로도 입증된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들의 규모는 소규모적이고 민간요업의 성격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퍼져나간 소규모의 窯業은 타락한 상감청자의 생산을 계속했을 것이며 전성기의 상감청자에서 추구했던 정형화한 기형이나 무늬는 흐트러진 조잡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자연 발생한 것이 바로 粉靑沙器이며, 조선왕조가 건국히 발전하여 나간 것과 보조를 맞추어 발달하고 구김살 없는 대충의 감정이 순수히 표출된 沙器로 발전하니 분청사기가 소박한 한국적인 도자기로 대표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면 朝鮮白磁의 발생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一·三세기 후반과 一·四세기의 고려백자가 거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조선백자로 어떻게 移行하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朝鮮白磁, 즉 一·五세기의 백자에는 軟質계통의 것과 硬質계통의 것이 있는데 軟質계통의 백자는 고려백자의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

고 있고, 경질백자는 明白磁의 영향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朝鮮의 연질백자 종류는 대체로 조선상감백자가 이에 속하는데 一五세기 후반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고려백자와 연결지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국도자사상 가장 모호한 부분중의 하나이며 조선상감백자는 문양과 기형의 성격에서 볼때 안으로는 粉靑沙器와의 관련, 밖으로는 明靑畫白磁와의 관련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新興 朝鮮王朝의 사기제조소로서의 官窯가 자리 잡았던 京畿道 廣州 지방에서 상감백자가 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廣州 지방의 官窯의 인 성격은 一五세기 후반에 두드러지며 조선상감백자가 주로 생산되던 一五세기 전반기에는 明仁宗에게 보낼 정도의 우수한 백자가 만들어 지기는 했으나 官窯의 인 성격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시기이다. 그러나 廣州는 조선초기 부터 좋은 白磁를 생산했던 곳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廣州地方 産이라고는 볼 수 없는 李成桂의 發願文이 음각된 金剛山 月出峯에서 발견된 『洪武二四年銘白磁鉢』(圖六五—A·B)(圖六六) 二點과 白磁盥(圖六六)(圖六七)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는 그릇이다. 洪武二四年은 一三九一년으로서 조선 왕조 건국 一年 전에 해당되며 이미 李成桂의 확고한 정치적인 기반은 구축되었던 때이다.

銘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발外面에 『大明洪武二十四年辛未四月立願·』, 사발內面에 『自釋尊入滅經二千四百餘年大洪武二十四年辛未·』로 시작하는 발원문이고, 굽주위에는 『辛未四月日防山砂器匠沈龍同發願比丘信寬』이라는 銘文이 각각 새겨 있다.

洪武二四年銘鉢의 형태는 이미 고려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상당한 量感을 보이고 유약과 태토도 고려백자의 연질제 태토의 무색 투명유종류가 아닌 파르스름한 반투명의 조잡한 유약과 태토에 잡물이 많이 섞인 특징을 보인다. 오히려 龍仁郡二東面西里의 고려백자의 요지로부터 이

와 유사한 釉胎를 보이는 陶片이 있어 확실한 증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T. I. Daring Method 分析 실험에 의해 西里窯址가 一三〇·一三二〇·一三四〇년이라는 연대를 확인한 바 있다고 앞에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후시 양자간의 관련성은 없을 까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런데 『防山砂器匠沈龍』이라는 내용에서 이 그릇을 만든 沈龍이 防山 출신의 砂器匠이며, 防山이 그 당시 咸吉道鍾城郡都護府에 있었던 지방일 가능성이 있고 李成桂의 본거지가 함경도 永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그릇은 함경도 지방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洪武二四年銘鉢은 지방산의 하나로써 一四세기 말엽 지방백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여하튼 洪武二四年銘鉢은 그 당당한 조선적인 기형과 釉胎에서 이미 고려적인 지배체제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高麗와 朝鮮王朝의 과도기적인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면은 도자공예가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洪武二四年銘鉢과 같은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적어도 이보다 훨씬 전에 이미 새로운 지배체제의 형성이 암시되고 있었다는 점과 이와 유사한 백자요지가 경기도 광주 이외에 다른 지방에도 一四세기 말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洪武二四年銘鉢을 전후한 白磁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窯址의 조사나 기타 비교할 만한 編年資料가 발굴되지 않아 조선 백자로의 移行문제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V. 맺음말

高麗時代 白磁의 유포를 파악코자 發生, 發展, 朝鮮白磁에로의 移行이라는 三단계로 크게 구분하여 靑磁의 발전에 의존하여 살펴왔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고려백자의 발생은 一〇세기 중엽경으로써 서남해안 지대에 산재해 있는 初期靑磁와는 다른 제작배경을 가졌으며, 開京과 가까운 龍

仁和 같은 내륙지방에서 시작하고 있다.

둘째, 양식적으로는 해무리굽과 같은 굽과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면 中國에서 晩唐五代에 유행하는 해무리굽 양식과 初期 高麗白磁 해무리 굽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고려백자 해무리굽 罍이나 대접 또는 해무리굽의 陶片이 수집되는 龍仁郡二東面西里와 같은 白磁窯址를 一〇세기로 규정짓게 된다.

셋째, 소위 綠靑磁 문제는 고려백자와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발생문제에서 일단 고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綠靑磁는 종래의 九세기 말~一〇세기 초라는 실이 후퇴하고 새로히 一세기 중엽경의 지방청자로서 보아야 한다는 실이 대두됨에 따라서 고려백자와는 관련이 없음을 파악하였다.

네째, 淳化四年銘壺는 약간의 문제점을 지닌채, 白磁로 규정짓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淳化四年銘壺가 白磁이든, 靑磁이든, 또는 黃釉磁이든 간에 一〇세기 말경의 고려도자 기술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編年作品이다. 그러나 龍仁郡二東面西里의 白磁窯址의 발굴조사가 마무리된 연후에 淳化四年銘壺의 성격은 보다 정확한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다섯째, 一〇세기 발생기로부터 一二세기 절정기로 발전해 온 백자의 발전과정은 알 수 없으나 오랜 기술의 연마는 一二세기 전반에 이르러서 中國白磁를 대표하는 定窯白磁의 수준에 도달했음이 徐兢의 『高麗圖經』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그릇은 얇고 정교하며 釉面이 있고 유약이 탈락되는 특징이 있으며 연한 미색을 띠고 있다. 盞, 鉢, 술잔, 접시, 화병 등 모든 기형을 제작했으며 象嵌白磁도 남아 있다.

여섯째, 一二세기 후반 이후에는 象嵌白磁에서 특징을 나타내며 그 대표적인 생산지는 全北扶安郡保安面柳川里라는 것을 梨大博物館 소장의 陶片을 통해 파악되었다. 청자의 우수한 기술이 유지되는 一二세기 전반까지는 고려백자는 그 수준을 잃지 않은 것 같으며 청자가 변화와 퇴함에 따라 一三세기 후반 이후로는 고려백자의 제작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은 것 같다.

일곱째, 一四세기 중엽 이후 고려왕조의 몰락이 역력해짐에 따라 퇴락한 청자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갔으며 明白磁의 자극에서였는지 地方窯에서 粗質의 白磁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를 뒷받침해 주는 작품이 洪武二四年銘鉢이다. 그러나 이 그릇의 전·후를 연결하여 변화 발전한 단계가 파악되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이 파악된 고려백자는 고려시대 도자기의 주류는 되지 못했으나 一二세기의 象嵌白磁는 상감청자와 다른 특징으로 새로히 개발 발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백색 바탕에 赭土, 白土, 靑磁土의 상감효과를 독특한 맛을 보여준다.

高麗白磁의 編年도 시도하고자 했으나, 九九三년의 淳化四年銘壺의 예는 원년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부정확한 가운데 世紀別로 큰 특징의 흐름만을 三단계로 언급하였다.

앞으로 窯址發掘, 기초연구논문, 과학적인 분석, 실측도면 등의 구비된 자료를 갖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註]

- ①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東京:圖書刊行會, 一九四四, pp. 41~150. Gompertz, G.M. 『Koryo White Porcelain』, Transaction of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1953, vol. 27.
- ② 小山富士夫, 『高麗白磁・黑高麗・其他』, 『世界陶磁全集』 一三, 朝鮮上代・高麗, 東京:河出書房, 一九五五, pp. 251~256.
- ③ 崔淳雨, 『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 一八, 高麗, 東京:小學館, 一九七八, pp. 131~178.
- ④ 三上次男, 『高麗陶磁の起源とその歴史的背景』, 『朝鮮學報』 第九九・一〇〇 輯合併號, 日本:朝鮮學會, 一九八一, pp. 236~247.
- ⑤ 金敬悅, 『高麗白磁の研究』,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碩士學位論文(未刊) 一九八七.
- ⑥ 徐銀珠, 『高麗白磁の研究』-柳川里出土白磁片을 中心으로-, 梨花女子大學 學校教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未刊), 一九七六.
- ⑦ 長谷部樂爾, 『唐の白磁と黑釉陶』, 『世界陶磁全集』 一一, 隋・唐, 小學館,

1976, p. 204.

三上次男, 『朝鮮半島出土の中國唐代陶磁とその史的意義』, 『朝鮮學報』八七輯, 朝鮮學會, 一九七八, pp. 6~8.

⑥ 金元龍, 『義城出土唐刑州窯白磁瓶』, 『亞細亞學報』, 第一輯, 亞細亞學術研究會, 一九六五, pp. 103~113.

⑦ 刑州窯址一九八〇年八月~十一月의 發掘, 中國河北省臨城縣刑州窯의 本포토와 發掘, 唐代 刑州窯陶窯址가 조사 발굴된 이후 刑州窯白磁의 研究에 關한 報告, 河北臨城刑州窯址調查報告, 李輝柄, 『唐代刑州窯窯址考察點初步探討』, 叶喆民, 『刑窯』, 『文物』, 文物出版社, 一九八一年九月號, pp. 37~52.

⑧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報告書一, 一九八四, pp. 325~326.

⑨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彌勒寺址發掘調査中間報告』, 一九八二, p. 16, 43, 44.

⑩ 註 11, 崔淳雨, 『仁川市景西洞綠青磁窯址發掘調査概要』, 『考古美術』七卷 六號(통 卍 七)1), 『考古美術』一~100號合輯下, 一九六六, pp. 206~208.

⑪ 鄭良謨, 『우리나라도자기의 발달』②, 『박물관유아기』一九七〇・11, 제 六호 四면.

⑫ 崔淳雨, 『高麗時代の 陶磁』, 『韓國美術全集』九, 高麗陶磁, 同和出版社, 一九七五, p. 4.

⑬ 註 1, 崔淳雨,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世界陶磁全集』一八, 高麗, 小學館, 一九七八, p. 191과 pp. 201~202에 圖版 211~220 附載.

⑭ 金得豐, 『全南海南郡山二面珍山里青磁窯址調查報告』①~⑤, 『박물관신문』一四四~一四八호, 國立中央博物館, 一九八四.

⑮ 尹龍, 『綜合的考察』, 『莞島海底遺物』,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一九八五, pp. 63~66.

⑯ 註 1, 崔淳雨, 『高麗의 青磁』, 陶磁大系 二九, 平凡社, 一九七七, p. 95.

⑰ 金富弼, 『三國史記』卷四四, 列傳四, 張保臯條, 乙酉文化社, 一九七七, pp. 416~417.

⑱ 『金』,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의 就』(1) (1), 『震檀學報』第一卷・第三卷, 震檀學會, 一九三三・一九三五, pp. 88~114과 pp. 357~375.

⑳ 金富弼, 『三國史記』卷五〇, 列傳 一〇, 弓裔・甄萱條, 乙酉文化社, 一

九七九, pp. 451~461.

㉑ 『高麗史』世家卷一, 太祖 一, 本記 二二, 延世大學校東方學研究所(景仁文化社影印), 一九七六, 上卷, p. 41.

㉒ 三上次男, 『朝鮮半島出土の中國唐代陶磁とその史的意義』, 『朝鮮學報』第八七輯, 一九七八, pp. 8~35. 『高麗陶磁の起源とその歴史的背景』, 『朝鮮學報』第九九・一〇〇合併號, 一九八一, pp. 228~229.

㉓ 『雁鳴池』發掘調査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一九七八, 『皇龍寺』, 遺蹟調查報告書 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一九八三・一九八四.

㉔ 銅川市旬邑縣文化館陝西省文管會, 『陝西新發見兩處古窯址』, 『文物』, 一九八〇年一期, pp. 63~67, 圖 11.

㉕ 長沙市文化局文物組, 『唐代長沙銅官窯址調查』, 『考古學報』, 一九八〇年一期, pp. 67~96, 圖 六.

㉖ 馮先銘, 『河南密縣登封唐宋古窯址調查』, 『文物』, 一九六四年三期, pp. 47~55.

㉗ 長正嶺, 『西安韓森寨唐基清理記』, 『考古通訊』, 一九五七年 五期, pp. 57~61.

㉘ 益陽縣文化館, 『湖南益陽縣赫山廟唐基』, 『考古』, 一九八一年 四期, pp. 315~318.

㉙ 『全國基本建設工程中出土文物展覽圖錄』, 北京, 一九六五, 圖版 二〇五。(三上次男, 『高麗陶磁の起源とその歴史的背景』, 『朝鮮學報』九九・一〇〇合併號, 一九八一, 圖 三 참조).

㉚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 『三年來廣州市古墓葬的清理和發見』, 『文物』參攷資料, 一九五六年 五期, p. 27, 圖 1111.

㉛ 華北의 晩唐五代를 대표하는 定窯과 一九六〇~一九六二년의 發掘, 河北省文化局의 發掘 조사한 河北省曲陽面澗磁村의 定窯가 그 대표이다. 이 곳 堆積層에서는 晩唐・五代・北宋의 三層이 확인되었는데 下層인 晩唐層에는 黃釉片이 가장 많고 白磁片이 그 다음으로 많이 포함되었으며 五代時代 堆積層에는 白化粧片이 있음이 주목되며 上層인 北宋代 堆積層에는 많은 量의 白磁片만이 發現되어 있다. 上層의 白磁片은 灰무리질, 口緣의 끝을 磨利케 磨아 마무리한 소위 玉緣, 白化粧片이 없는 순백의 투명유사유 의 도편층의 特徵인 특성을 보인다.

㉜ 秦弘燮, 『慶州出土骨壺의 新例』, 『考古美術』第二卷 第五號(통권 一〇) 第一號 第一〇〇號 合輯 上卷, 韓國美術史學會, 一九七九, p. 105.

㉝ 『世界陶磁全集』一八, 高麗, 小學館, 一九七八, p. 203에 圖版 11111・111111.

㉞ 사진과 實測圖面은 같고 陶片이 아님.

㉟ 金載悅, 『龍仁高麗白磁窯址發掘報告』一九八五年 五月 韓國美術史學會月刊

發表要旨。

- 36 鄭明鎬·尹龍二, 『高敞雅山溪水沒地區發掘調查報告』, 遺蹟調查報告 第一冊,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一九八五, p. 74.
- 37 崔淳雨, 『韓國青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一九八二, pp. 23~27; pp. 43~48.
- 38 T. L. of Thermo-Luminescence(熱釋光)의 略字로 加熱發光分析을 이용한 絶對年代決定方法이다. 이것을 一九五三年 美國 위스콘신 대학의 Daniel 교수에 의해 鐵物의 年代測定에 利用할 수 있음을 발표한 이래, 一九六〇年의 California 대학의 G. Kennedy 교수가 그리스 토기의 年代測定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測定의 误差는 十~一〇%로 보고 있다.
- 39 註三五 참조.
- 40 金載悅, 『高麗白磁의 研究』, 서울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碩士論文(未刊), 一九八七, pp. 88~98.
- 41 註40, 金載悅, 앞책, p. 91 <表 111> 참조.
- 42 B의 치수: 높의 五·六cm, 입지름 一五·三cm, 굽지름 五·三cm.
- 43 높의 六·四cm, 입지름 一六·六cm, 밑지름 五·七cm.
- 44 굽의 三·五cm, 입지름 一九·五cm, 밑지름 一六·四cm.
- 45 註1, 野守健, 앞책, p. 239.
- 46 註2, 崔淳雨, 앞책, p. 239; p. 131.
- 47 鄭良謨, 『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 一八, 高麗, 小學館, 一九七八, pp. 194~195; 崔淳雨, 『白磁淳化四年銘항아리 圖 一八七의 圖版해설』, 『青磁』, 韓國의 美 四, 中央日報季刊美術, 一九八一, p. 262.
- 48 『世界陶磁全集』 一八, 高麗, 小學館, p. 153의 圖版 一一五·一一六. 註四六 참조.
- 49 註三, 三上次男, 앞판, pp. 249~250.
- 50 높의 七·六cm, 입지름 一六·九cm, 밑지름 六·三cm.
- 51 註二, 崔淳雨, 앞판, p. 142.
- 52 지름 一〇·二cm와 八·四cm.
- 53 鄭良謨, 『三陟那北坪邑三和里出土 高麗時代遺物一括』, 『考古美術』 一一九, 一一〇, 『韓國美術史學會』 一九七六, pp. 190~199; 註二, 崔淳雨, 앞판, pp. 137~142.
- 54 註五三, 鄭良謨, 앞판, pp. 196.
- 55 높의 三·一cm, 밑지름 九cm와 높의 二·八·七cm, 밑지름 九·三cm.
- 56 註一, 野守健, 앞판, pp. 12~13.
- 57 높의 二·八·一cm, 입지름 五·七·五cm, 밑지름 一〇·九cm.
- 58 註五三, 鄭良謨, 앞판, p. 199; 註二, 崔淳雨, 앞판, p. 138.
- 59 金炯泰氏 소장, 높의 一·八·九cm, 입지름 四·八cm, 밑지름 六·五cm.
- 60 崔淳雨, 『青磁』, 韓國의 美 四, 季刊美術, 一九八一, p. 264, 圖 一九九 해설.
- 61 徐兢, 『高麗圖經』 卷三二, 器皿三, 陶尊, 梨花史學叢書 第二輯, p. 309.
- 62 註六一, 徐兢, 앞판, p. 310.
- 63 註六一, 徐兢, 앞판, p. 309~310.
- 64 定器制度란 『국역고려도경』 고전국역총서 一〇九, 민족문화추진회, 一九七八, p. 182에 의하면 『경주의 일정한 형태의 기물을 만드는 법칙을 말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이것은 번역자가 定窯 白磁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鄭良謨, 『우리나라 도자의 발달』②, 『박물관유우』 제六호 제四면(一九七〇·一一·一)에서도 역시 定窯의 制度로서 보고 있다.
- 65 서울개인소장, 입지름 一五·一cm, 높의 三cm.
- 66 『世界陶磁全集』 一八, 高麗, 小學館, 一九七八, 圖 九九·一〇〇 鄭良謨 해설 참조.
- 67 日本 安宅博物館, 입지름 一·七cm.
- 68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높의 三·五·六cm, 입지름 五·八cm, 밑지름 一·四cm.
- 69 湖巖美術館 소장, 높의 一·八·七cm, 지름 七·六×二·〇·四cm, 밑지름 七·五×九·七cm.
- 70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총높의 三·三·三cm, 병높의 二·八cm, 입지름 五·五cm, 밑지름 八·一cm.
- 71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높의 三·〇·五cm, 입지름 五·五cm, 밑지름 一·七cm. 註六一~六三 참조. 徐兢, 『高麗圖註』 第二六卷, 燕禮, p. 262.
- 72 상감청자의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鄭良謨, 『高麗青磁와 青磁象嵌發生의 側面的 考察』, 『淵松文華』 六권, 一九七四, pp. 35~42에 의하면 一一五九년에 죽은 文公裕의 墓로부터 출토된 青磁象嵌 寶相唐草文대접은 가장 확실한 상감청자의 원년자료이다. 그러므로 이 대접의 형태, 문양우도, 시문성격 등의 세련됨을 미루어 보아 상감기법의 발생은 一一五九년(의종 三)보다 앞서는 仁宗(一一三三~一一四六) 초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二세기 초기 발생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를테면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淵松文華』 三二권, 一九八六, pp. 82~85에 의하면 象嵌발생의 중요한 기준인 文公裕墓출토 青磁象嵌寶相唐草文대접이 一一〇二년에 沒한 明宗 智陵 출토의 青磁象嵌寶相唐草文대접과 문양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대체로 같은 시기의 대접으로 보아 四〇여년을 내리잡고 있다. 따라서 文公裕墓 출토 대접은 상감발생의 기준 작품이 아니고 본격적인 상감청자의 생산단계에 들어 갔을 때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文公裕墓 출토의 대접이 과연 文公裕의 沒年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혹은 後葬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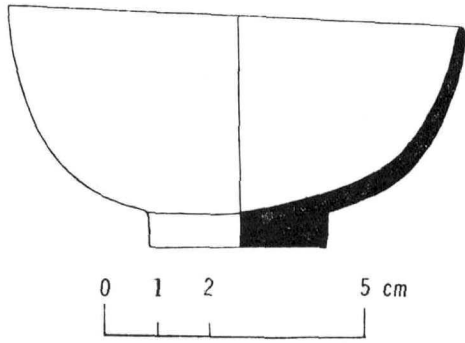
아닌지라는 등의 의문을 제시하게 된 결과 가 되었다. 二二〇二년에 沒한 明宗 智陵의 확실한 출토품인 靑磁象旅荔枝文대접과 비유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 감청자의 발생시기는 一一五七의 『高麗史』 기록을 뒷받침한다고 추정되는 靑磁瓦가 수집된 沙堂里 窯址에서 靑磁瓦片과 함께 수집되는 초보적인 상감청자편에 기준하여 毅宗年間(一一四七—一一七〇)인 一一五七년 전후경을 상 감청자의 발생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靑磁瓦와 함께 출토된 象嵌靑磁片에 대한 자세한 제시는 없다.

- 74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높이 二八·八 cm, 입지름 四·八 cm, 밑지름 一·〇五 cm.  
 75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높이 三二·八 cm, 입지름 一·五 cm, 밑지름 八·二 cm, 注口지름 二·八 cm.  
 76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높이 二·五 cm, 입지름 七·三 cm, 밑지름 四·五 cm.  
 77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높이 四·三 cm, 입지름 五·八 cm, 밑지름 四·二 cm.  
 78 湖巖美術館 소장, 높이 二六·六 cm, 입지름 四·六 cm, 밑지름 一〇 cm.  
 79 『扶安柳川里窯高麗陶磁』,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特別圖錄(一一),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一九八三.  
 80 『世界陶磁全集』 一八, 高麗, 小學館, 一九七八, p.211의 圖 二五五·二五六 참조.  
 81 현재 높이 三二·三 cm, 몸지름 二二·一 cm, 밑지름 一三·一四 cm.  
 82 현재 높이 二六 cm, 입지름 五 cm, 몸지름 一八·一 cm.  
 83 높이 三〇·七 cm, 입지름 六 cm, 몸지름 一七·八 cm, 밑지름 一一 cm.  
 84 높이 六·八 cm, 입지름 一九·七 cm.  
 85 높이 七·九 cm, 八·三 cm, 입지름 九·二 cm 밑지름 六·六·六·八 cm.  
 86 높이 약 四 cm, 입지름 八·一〇 cm, 밑지름 三·四 cm.  
 87 높이 三·三·三·八 cm, 입지름 六·六·六 cm, 밑지름 四·五·五 cm, 전지름 一〇·一一 cm.  
 88 높이 三·三·五 cm, 입지름 一三·七 cm, 밑지름 七·八 cm.  
 89 현재 높이 九·七 cm, 입지름 一一 cm, 추정, 밑지름 一二·七 cm 추정, 전지름 二二 cm 추정.  
 90 높이 四·三 cm, 지름 一五 cm.  
 91 높이 四·四 cm, 입지름 一一·八 cm, 상면지름 七·六 cm.  
 92 높이 九·四 cm, 입지름 二八 cm, 상면지름 二一 cm.  
 93 높이 四·五 cm, 입지름 一四·三 cm, 상면지름 一一·六 cm.  
 94 높이 一〇·二 cm, 입지름 三·四 cm 추정.  
 95 『世宗實錄』 卷 二七, 世宗 七年 二月 乙卯.  
 96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江原道淮陽郡長楊面長淵里 金剛山月出峯 出土로 佛前に 立願한 石函안에 넣었던 舍利裝置 등과 일괄로 발견된 것으로 白磁鉢 三개, 白磁盃 一개, 白磁香爐 一개가 들어 있었으며 白磁鉢 二개에는 內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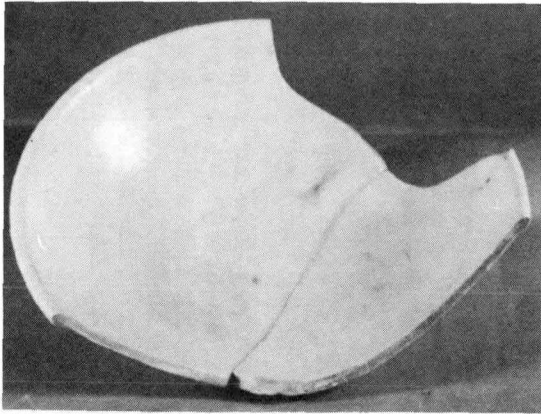
外面·굽주위에 각각 銘文이 있다.

鉢 A.. 높이 一九·一 cm, 입지름 二〇·五·一九·三 cm, 밑지름 九·三 cm.  
 鉢 B.. 높이 一七·一 cm, 입지름 二二·三 cm, 밑지름 一〇·二 cm.  
 鉢.. 높이 一〇·〇 cm, 입지름 二二·一 cm, 밑지름 七·八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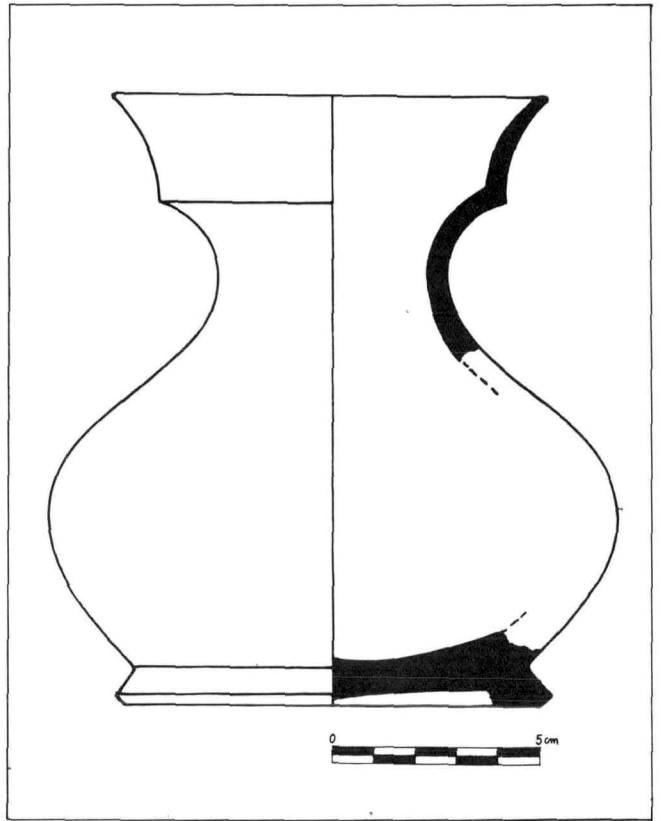
97 『世宗實錄』 地理志, 咸吉道鍾城郡都護府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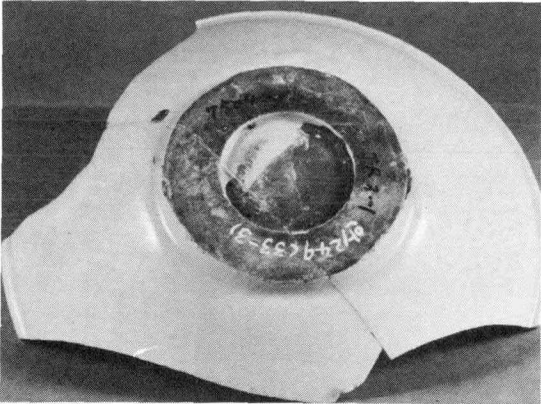
〈圖 1〉武寧王陵出土盃 (國立公州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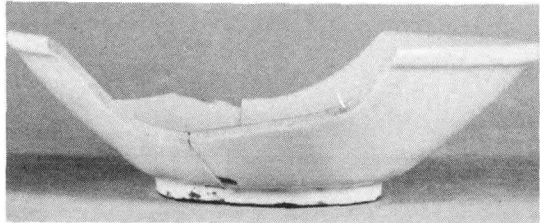
〈圖 3-1〉雁鴨池 出土 刑州窯白磁盃 (國立慶州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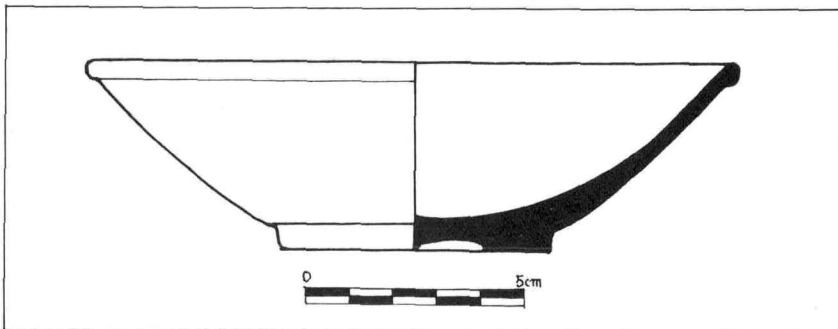
〈圖 2〉義城 出土 刑州窯白磁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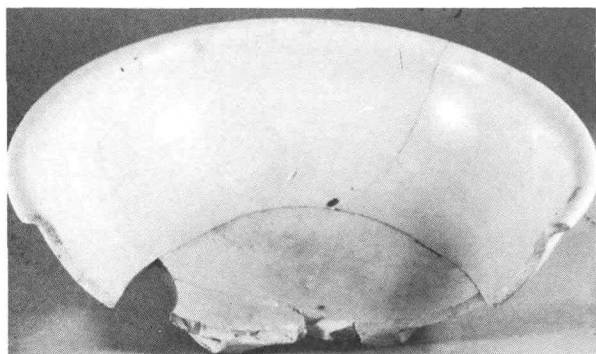
〈圖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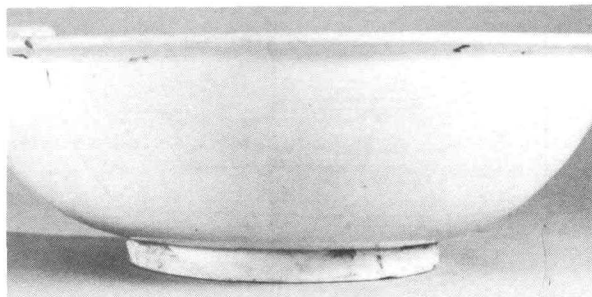
〈圖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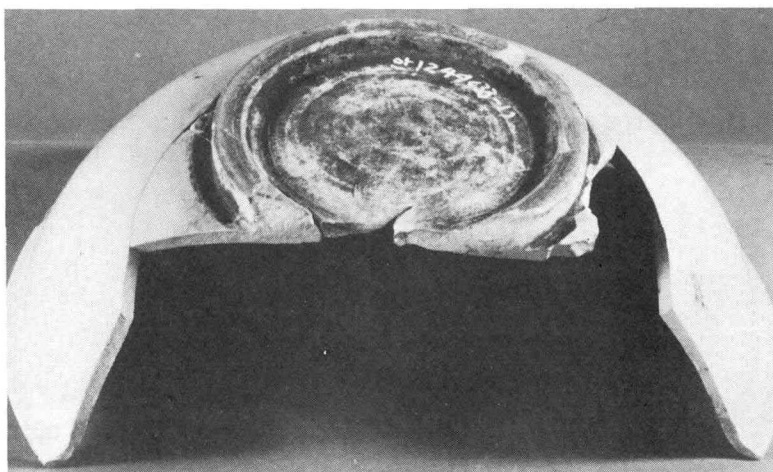
〈圖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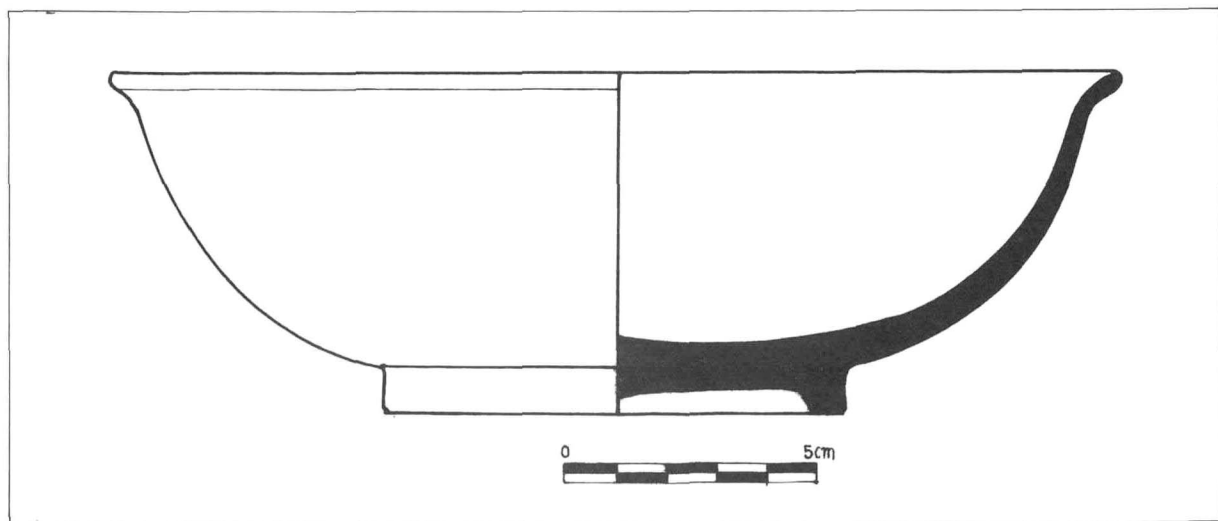
〈圖 4-1〉雁鴨池 出土 定窯白磁대접 (國立慶州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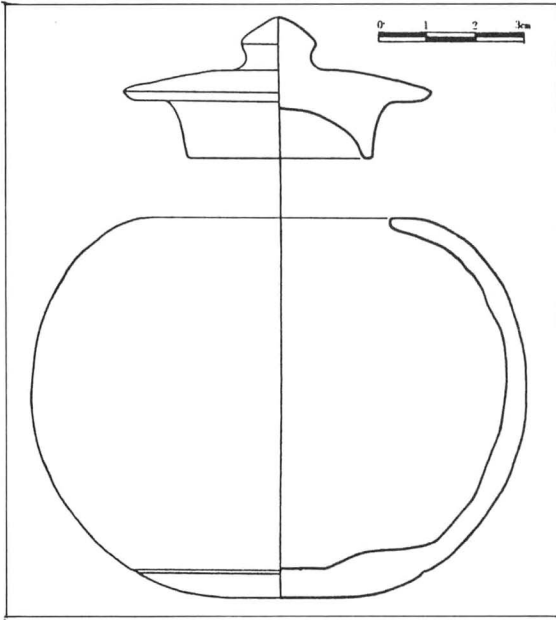
〈圖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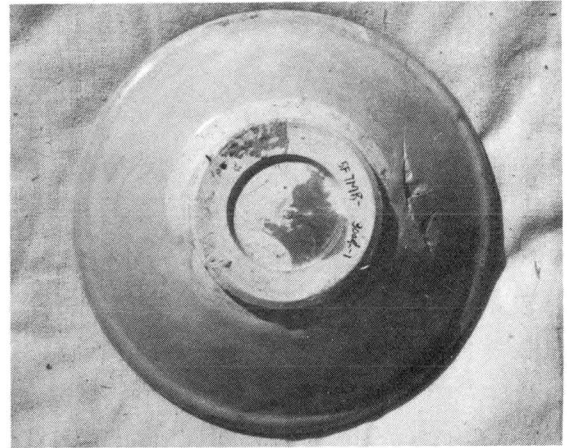
〈圖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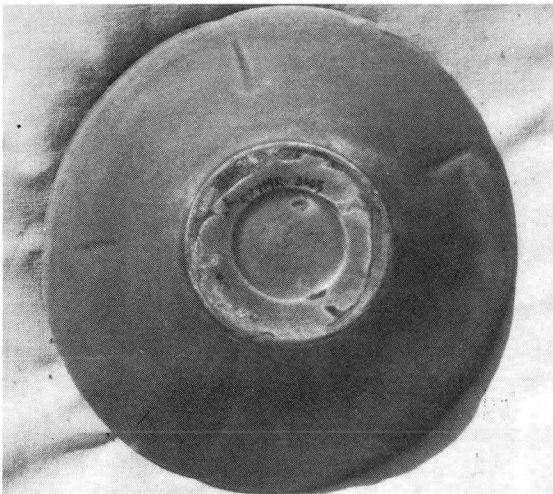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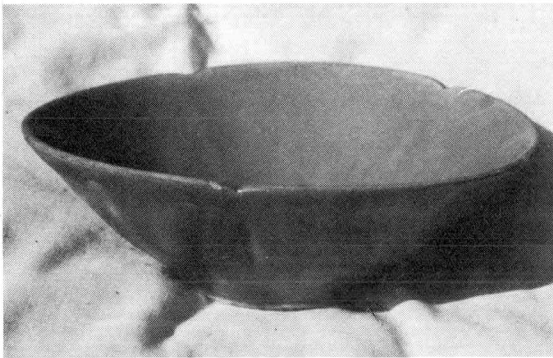
〈圖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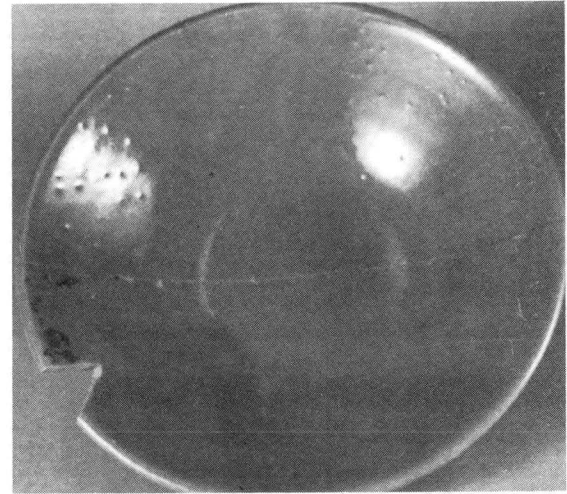
〈圖 5〉 皇龍寺址 木塔址 心礎石下 白磁小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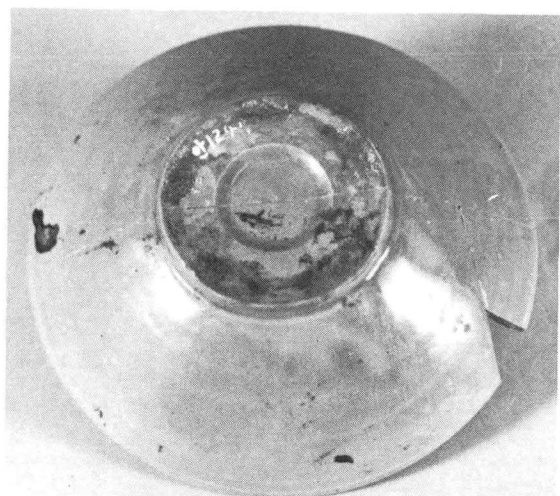
〈圖 6 - 1〉 彌勒寺址 出土 中國白磁 (858年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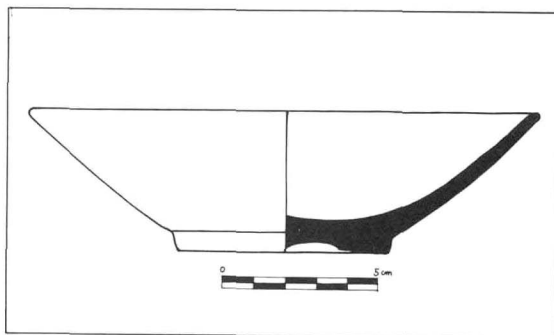
〈圖 6 - 2〉 彌勒寺址 出土 中國青磁 (858年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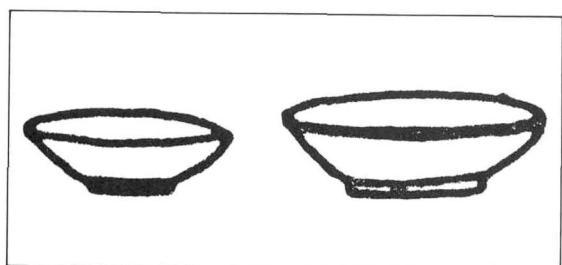
〈圖 7 - 1〉 雁鴨池 出土 青磁盤 (國立慶州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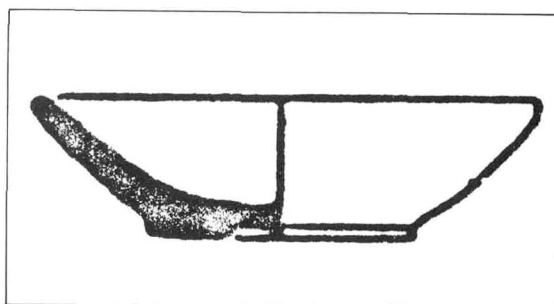
〈圖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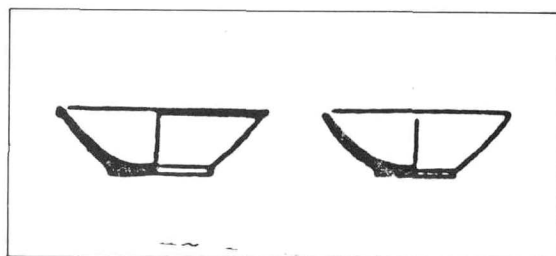
〈圖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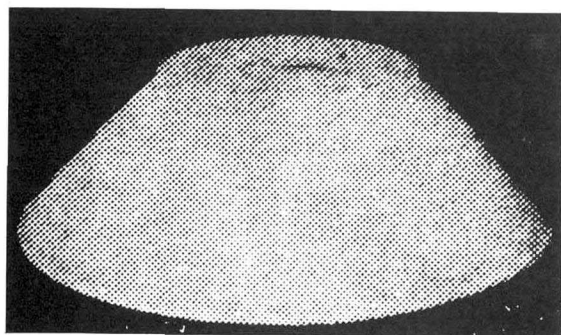
〈圖 8〉 745年 추정 中國白磁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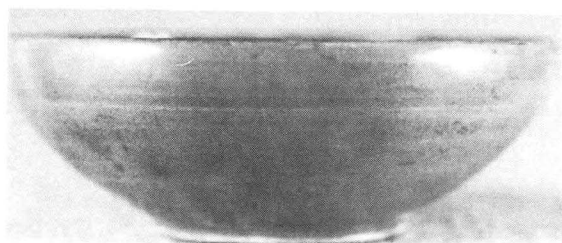
〈圖 9〉 763年 中國 白磁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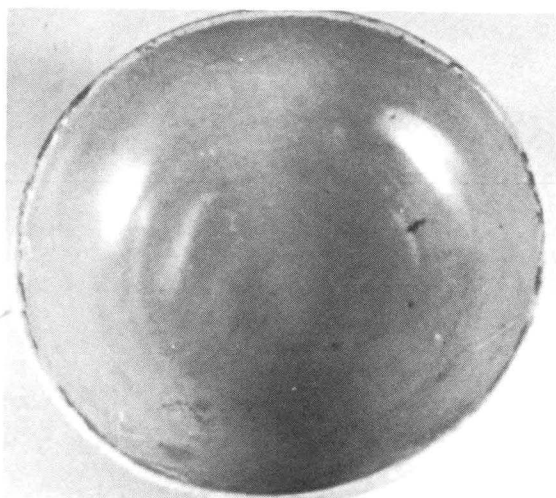
〈圖 11〉 858年 中國 白磁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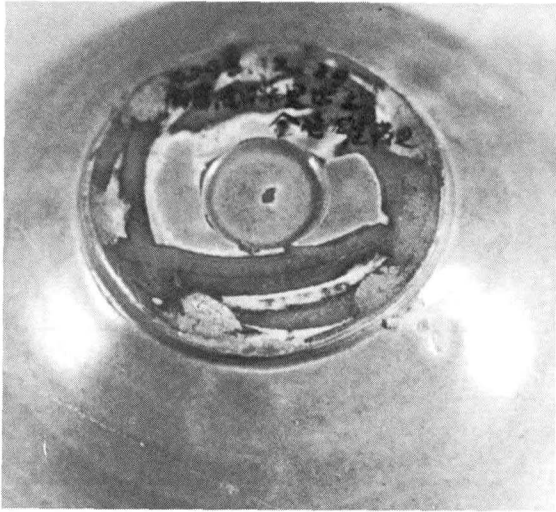
〈圖 10〉 姚氏墓 出土 白磁대접 (大中11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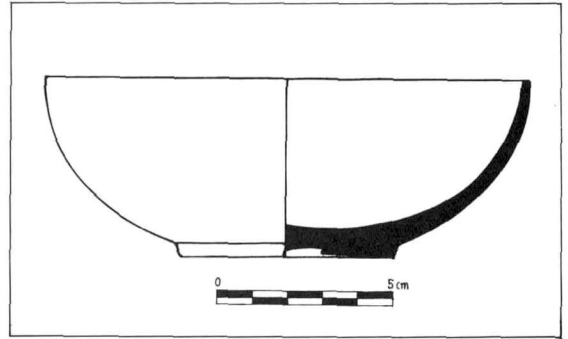
〈12-1〉 慶州拜里 出土 青磁 大접 (國立慶州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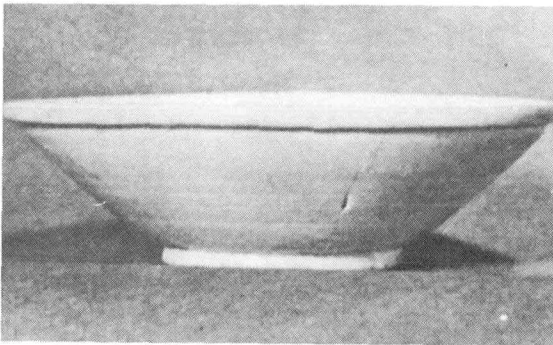
〈圖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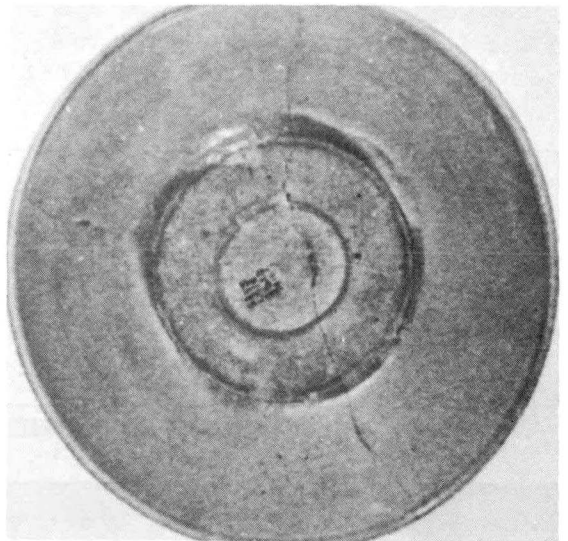
〈圖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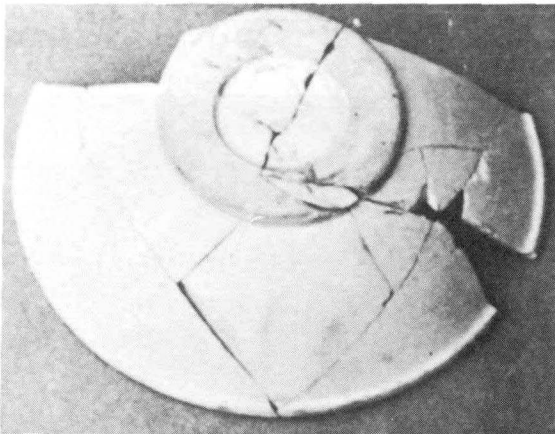
〈圖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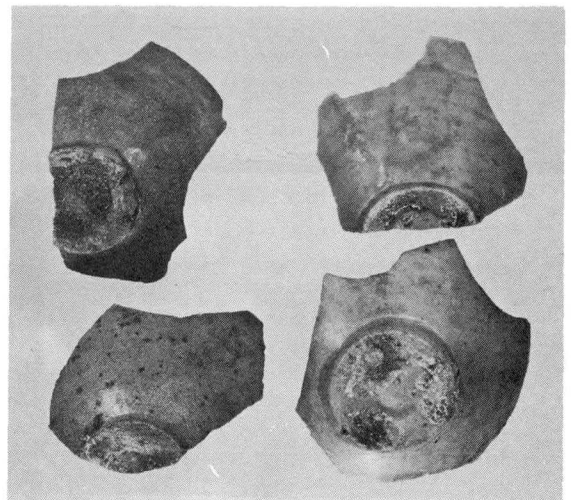
〈圖 13-1〉奈良藥師寺西僧房 出土 白磁盃  
(日本 藥師寺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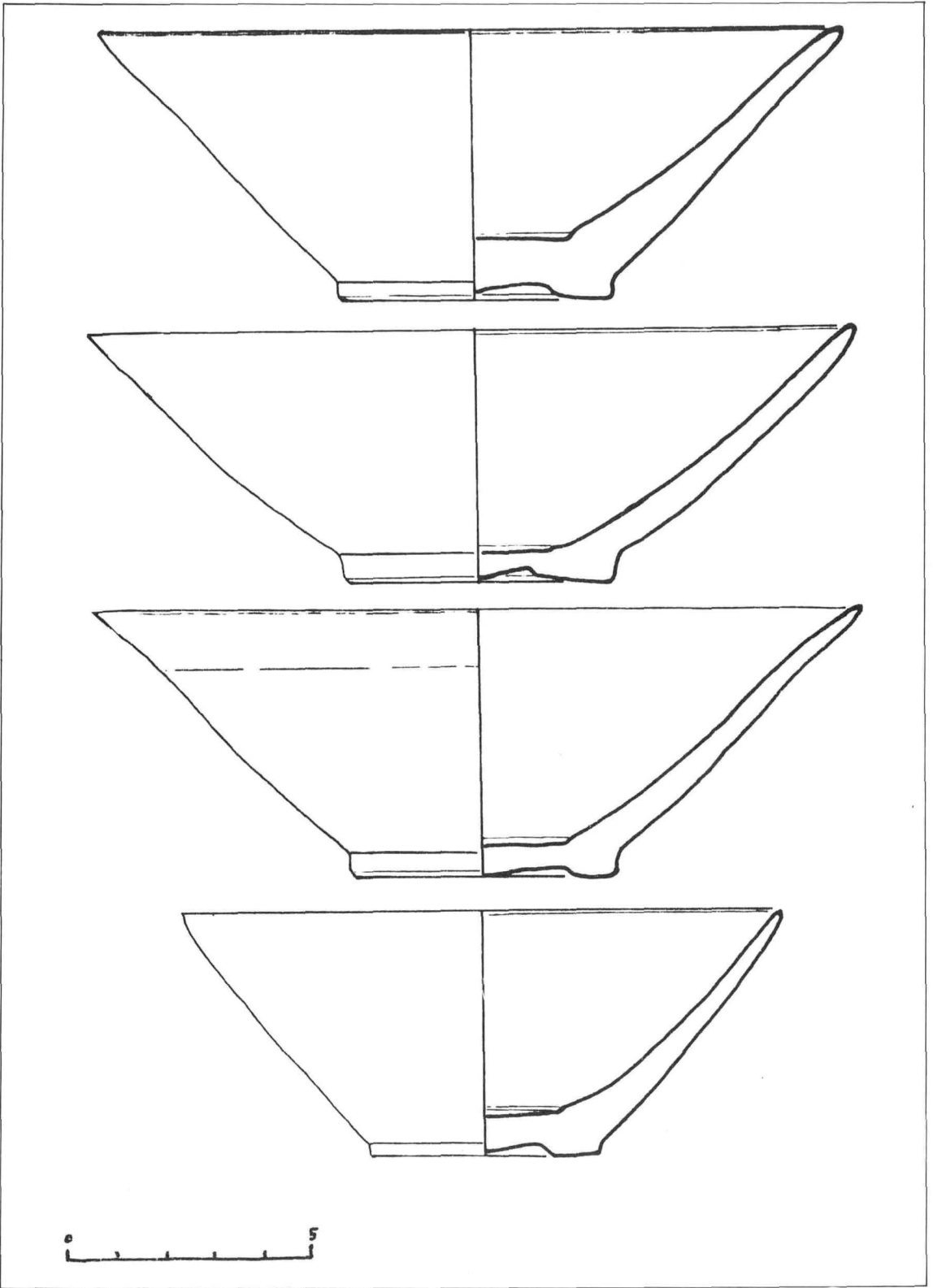
〈圖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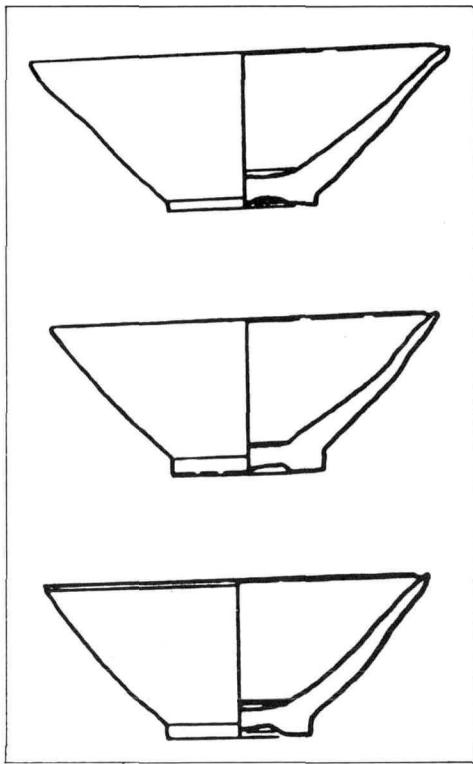
〈圖 14〉京都 西寺 出土 白磁盃  
(日本 平安 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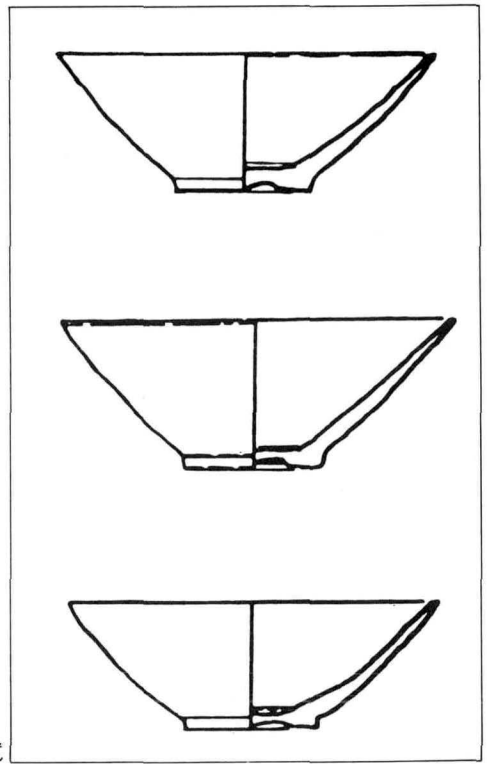
〈圖 15-1〉龍仁郡二東面西里出土 白磁盃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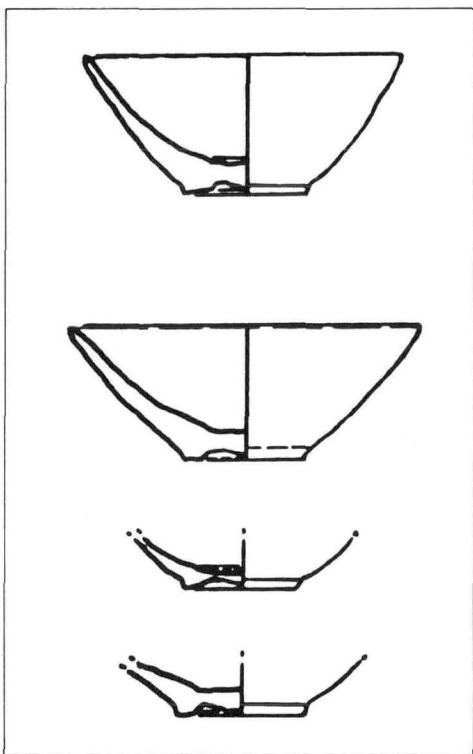
《圖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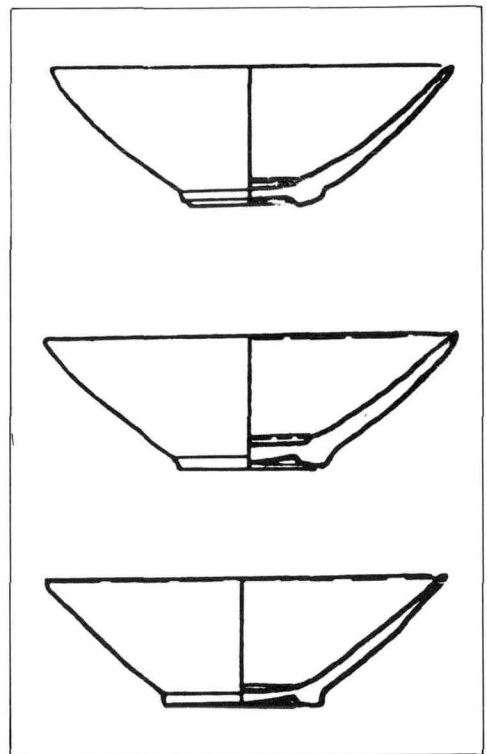
I式



II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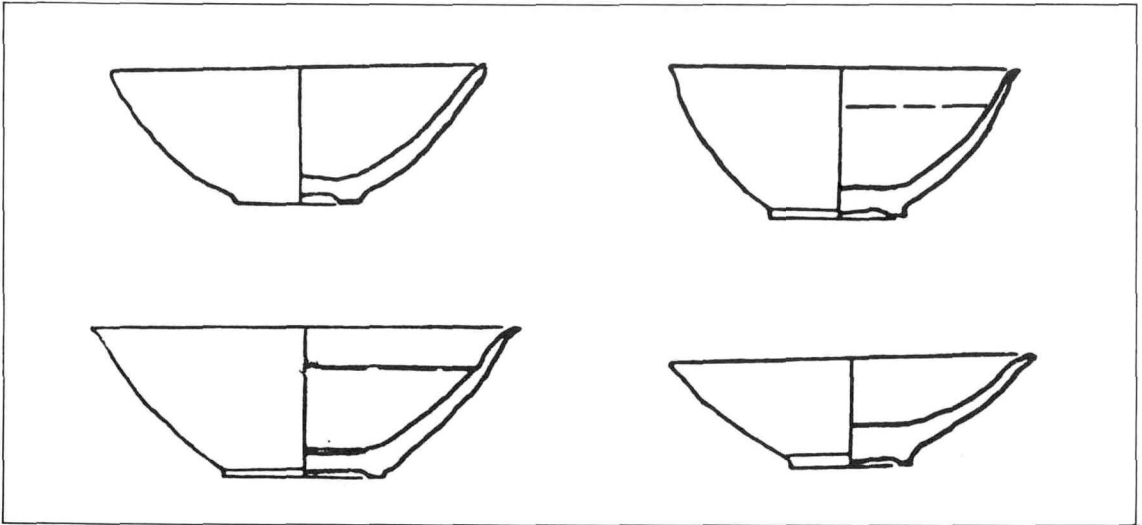


III式



IV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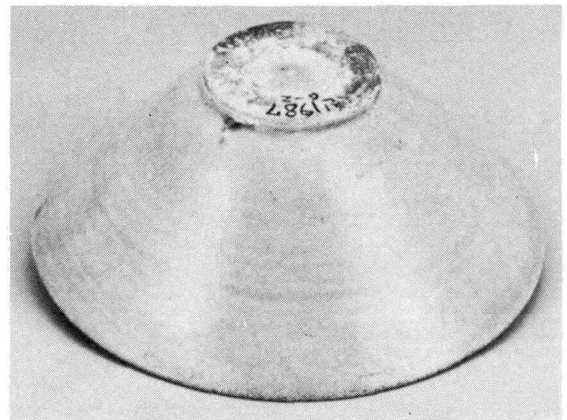
(圖 16) 龍仁高麗白磁窯址出土 해무리굽 鉢類 (金載悅論文圖面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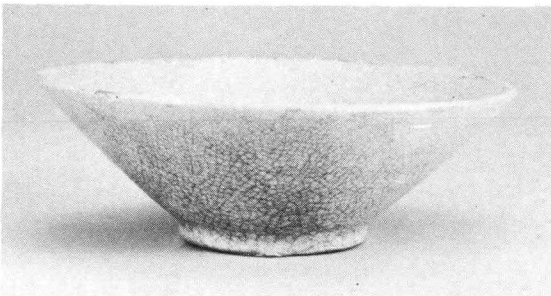
〈圖 17〉龍仁 出土粗質 白磁  
(金載悅 論文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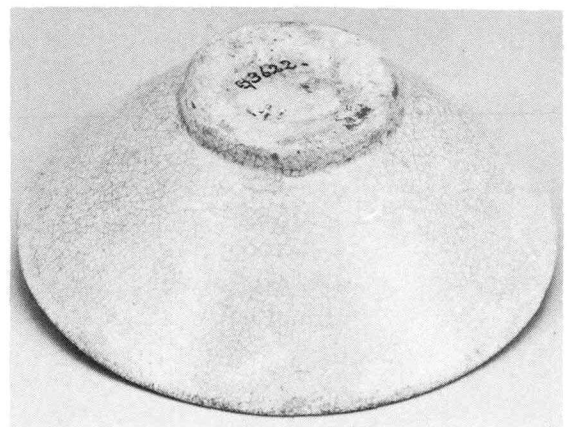
〈圖 18A-1〉白磁盃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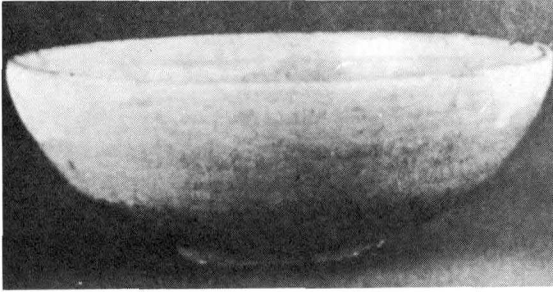
〈圖 18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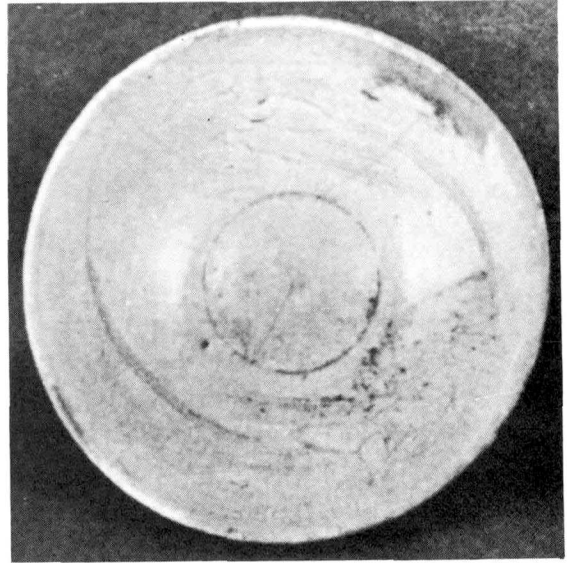
〈圖 18B-1〉白磁盃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圖 18B-2〉



〈圖 19-1〉白磁 陰刻 양무문 대접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圖 19-2〉



〈圖 20-1〉淳化四年銘壺 (梨大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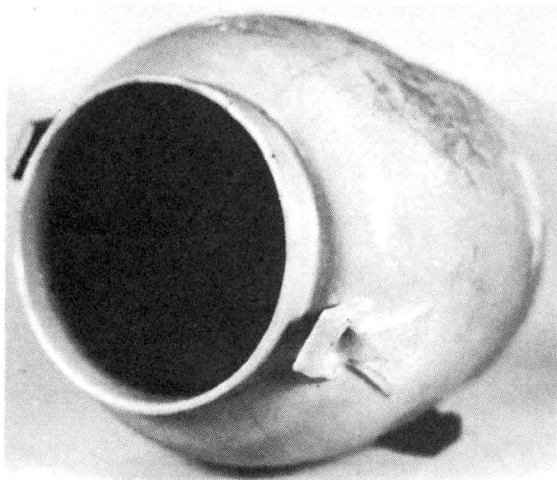
〈圖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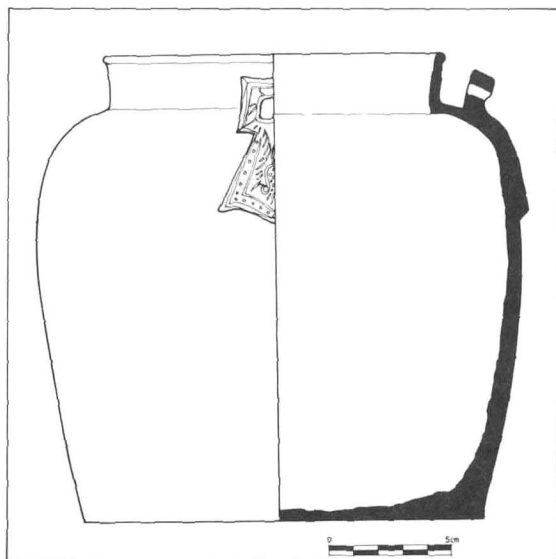
〈圖 21-1〉慶州 拜里 出土壺 (國立慶州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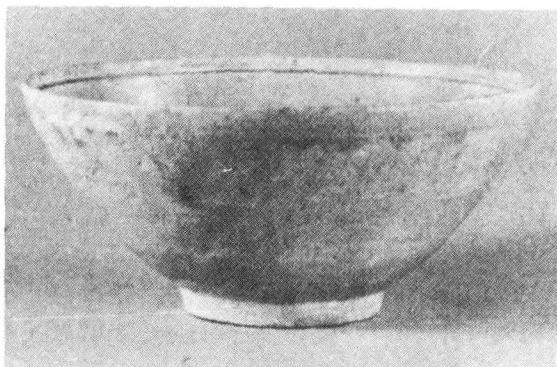
〈圖 21-2〉



〈圖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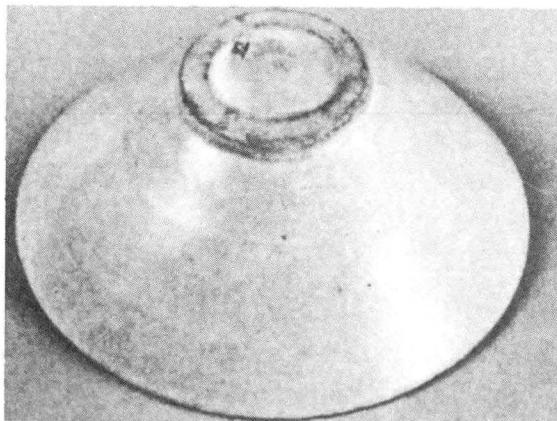
〈圖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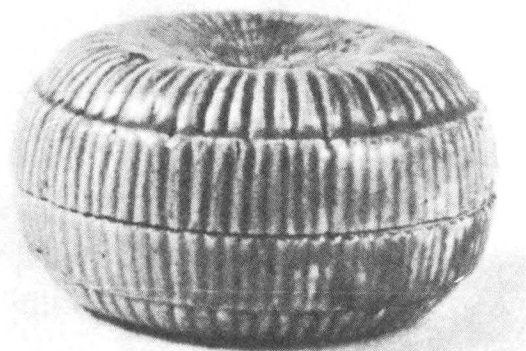
〈圖 22〉 白磁사발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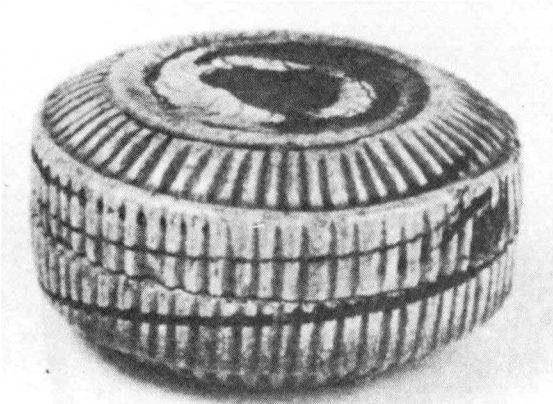
〈圖 23-1〉 白磁盪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圖 23-2〉



〈圖 24〉 白磁주름문합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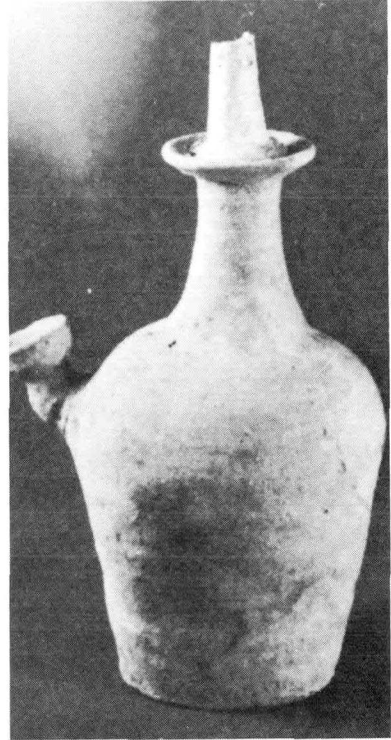
〈圖 25〉白磁 주름문합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圖 26-1〉三和里古墳 出土 白磁盃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圖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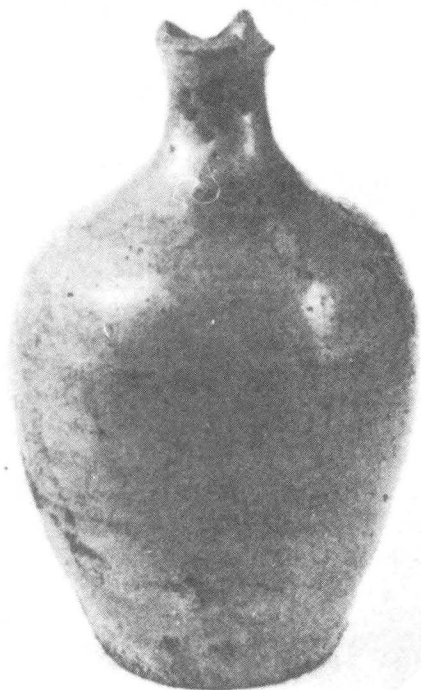
〈圖 27〉三和里 古墳 出土 白磁淨瓶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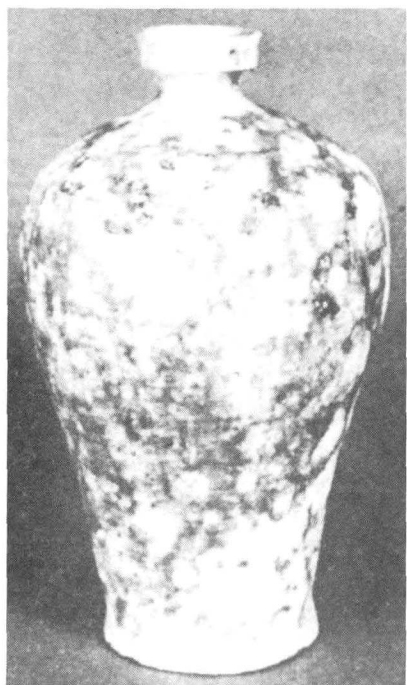
〈圖 28〉三和里 古墳 出土 白磁淨瓶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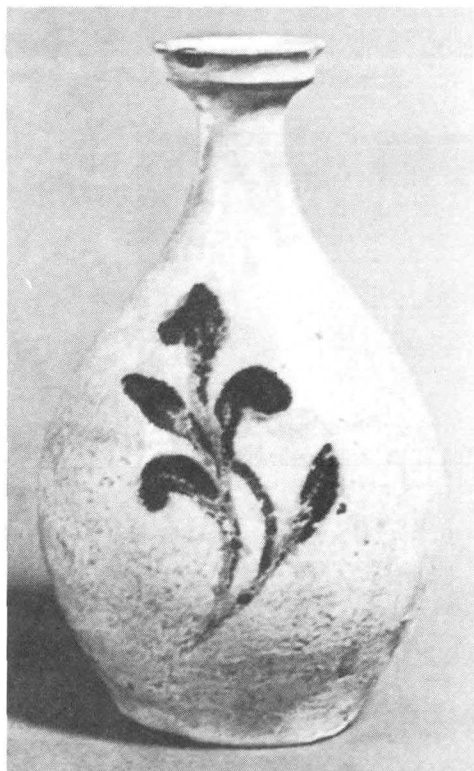
〈圖 29〉青磁陰刻蓮唐草文淨瓶(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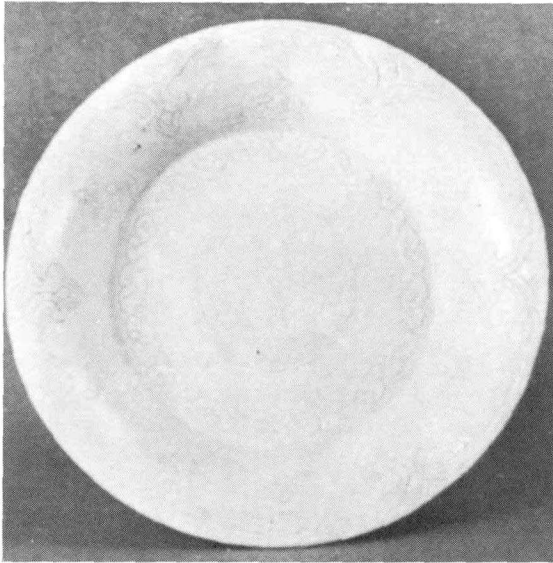
〈圖 30〉梅月里 古墳 出土 青磁瓶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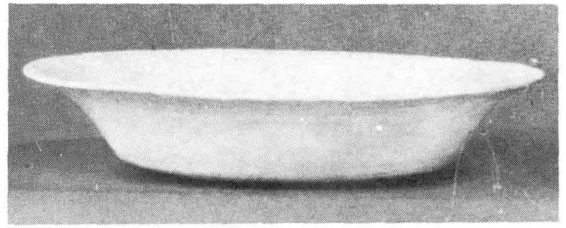
〈圖 31〉白磁鐵繪草文梅瓶(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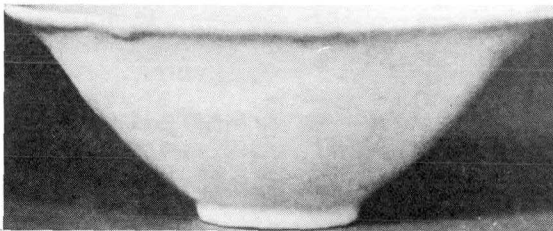
〈圖 32〉白磁鐵繪草文瓶(金炯泰氏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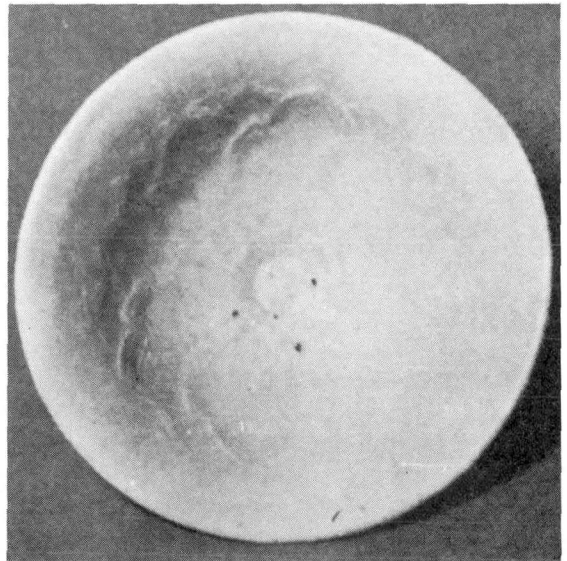
〈圖 33-1〉白磁陽刻蓮唐草文접시 (서울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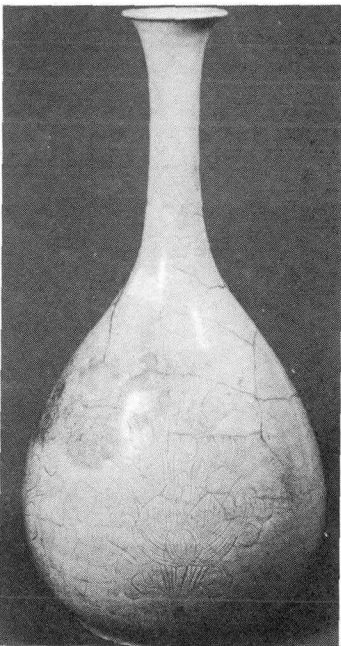
〈圖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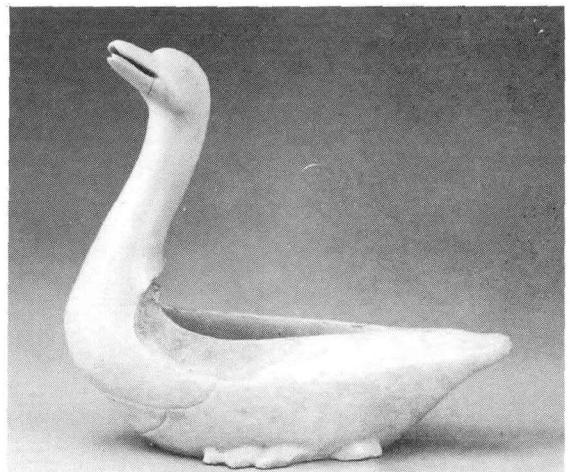
〈圖 34-1〉白磁陽刻蓮瓣文대접 (安宅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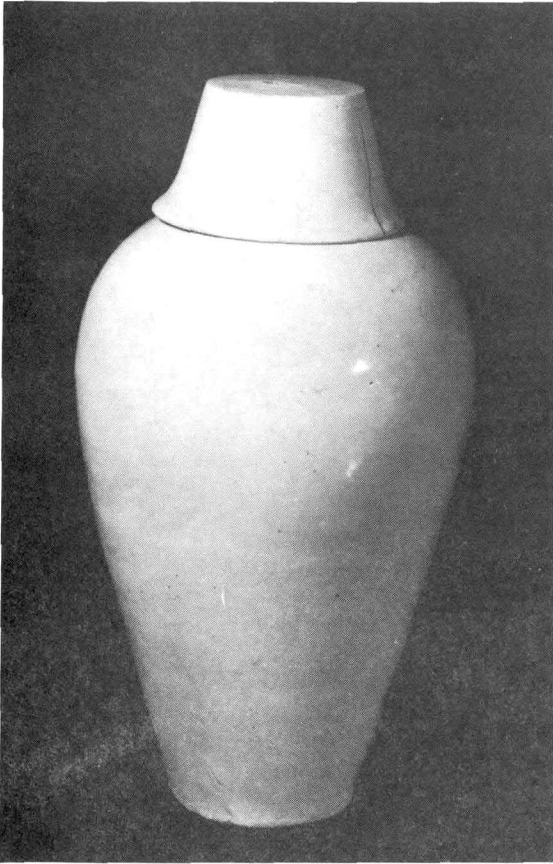
〈圖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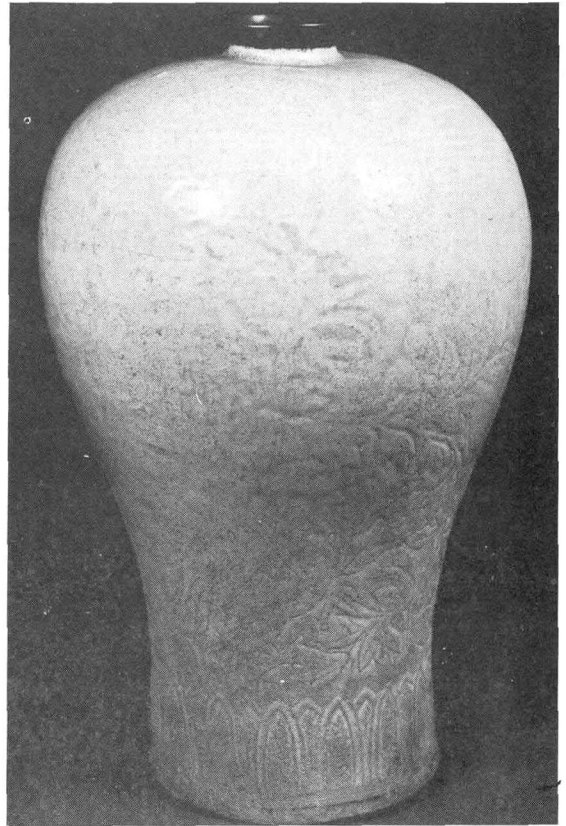
〈圖 35〉白磁陰刻蓮花文長頸瓶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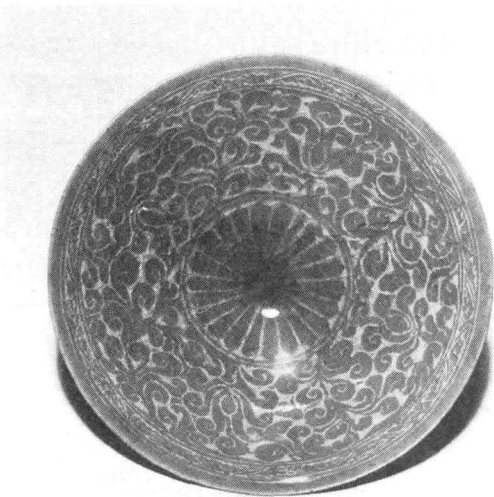
〈圖 36〉白磁鴨形香爐 (湖巖美術館 소장)



〈圖 37〉白磁梅瓶(國立中央博物館 소장)



〈圖 38〉白磁陽刻牡丹文梅瓶(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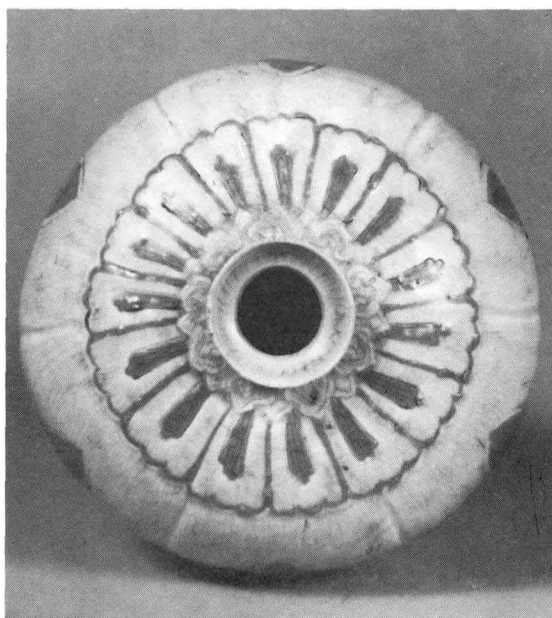
〈圖 39-1〉青磁象嵌 宝相唐草文대접



〈圖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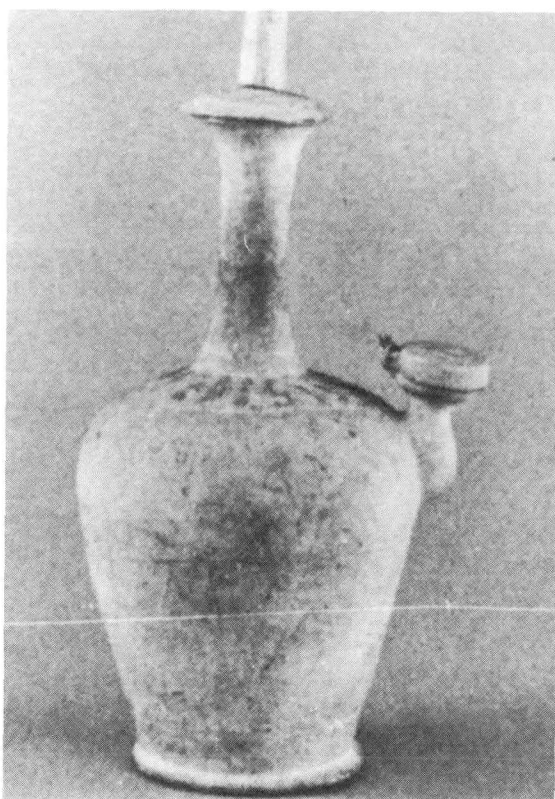
〈圖 40-1〉白磁象嵌牡丹柳蘆文瓶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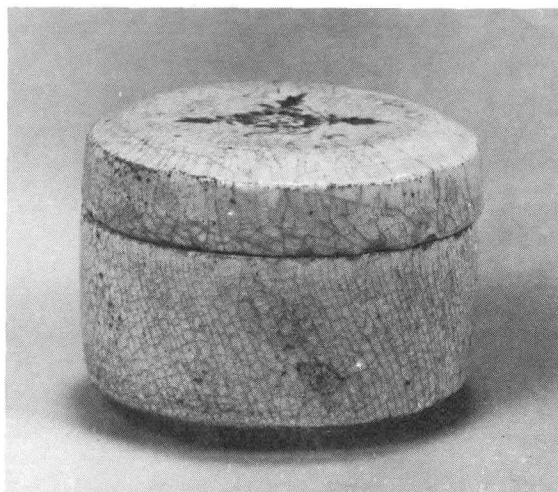
〈圖 40-2〉



〈圖 42〉白磁象嵌宝相唐草文盒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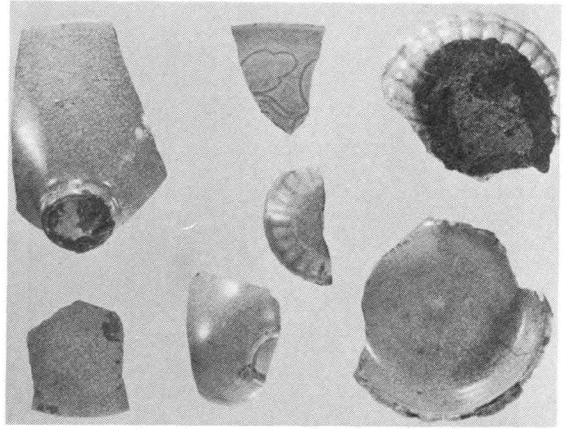
〈圖 41〉白磁象嵌蒲柳水禽文淨瓶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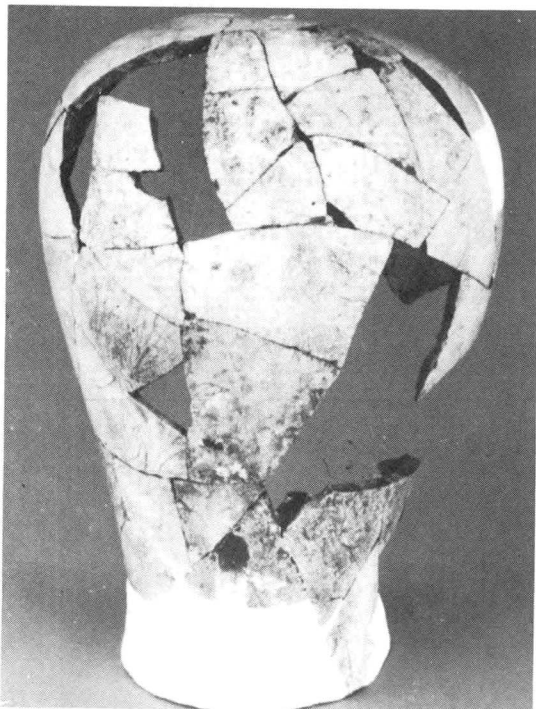
〈圖 43〉白磁象嵌菊花文盒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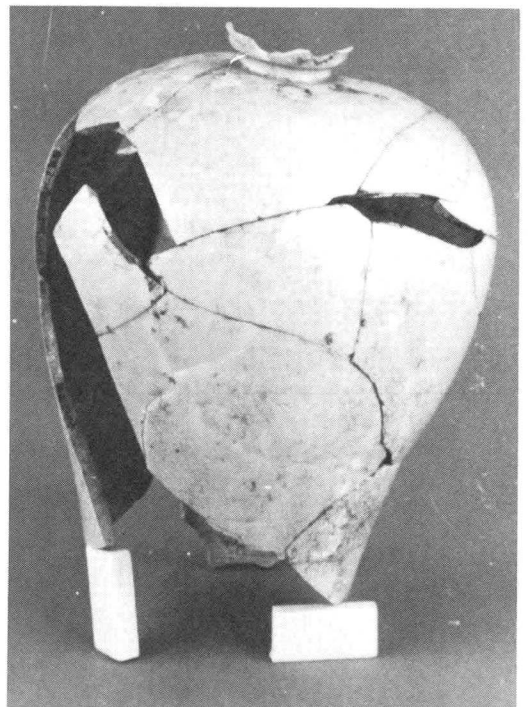
〈圖 44〉白磁鐵繪草文梅瓶(湖巖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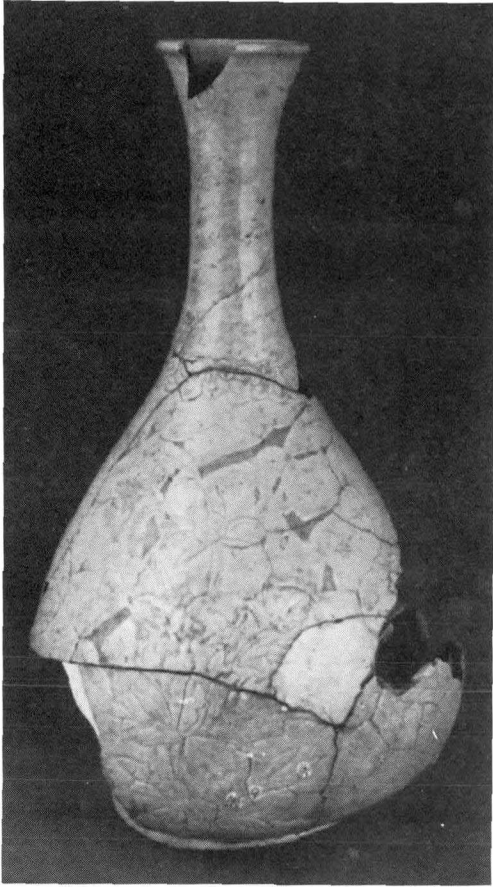
〈圖 45〉康津郡大口面沙堂里出土白磁片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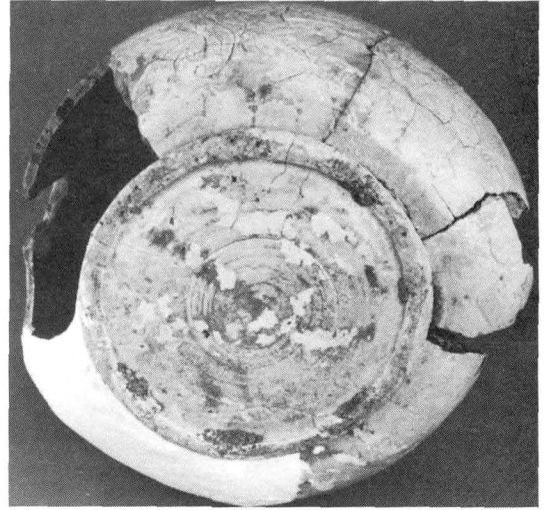
〈圖 46〉白磁陰刻蓮·牡丹文梅瓶(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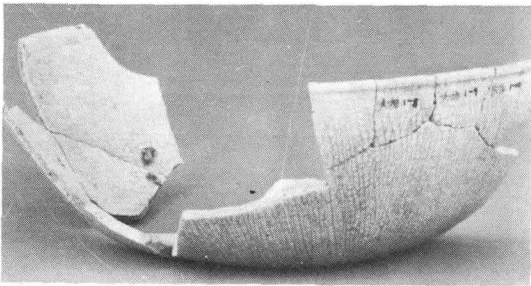
〈圖 47〉白磁無文梅瓶(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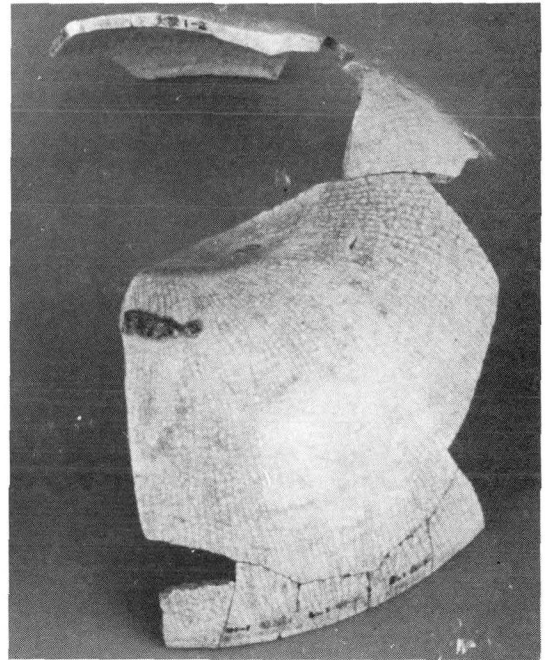
〈圖 48-1〉白磁陰刻蓮牡丹文瓶 (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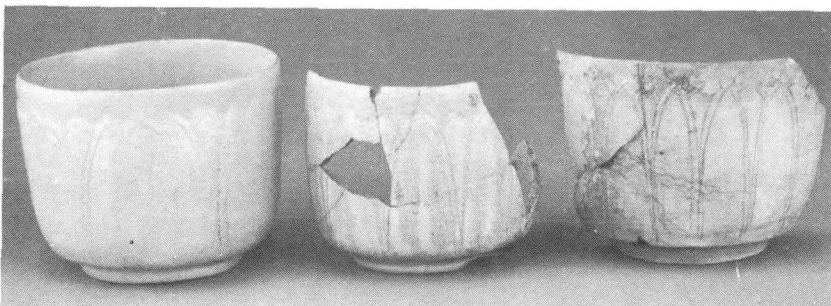
〈圖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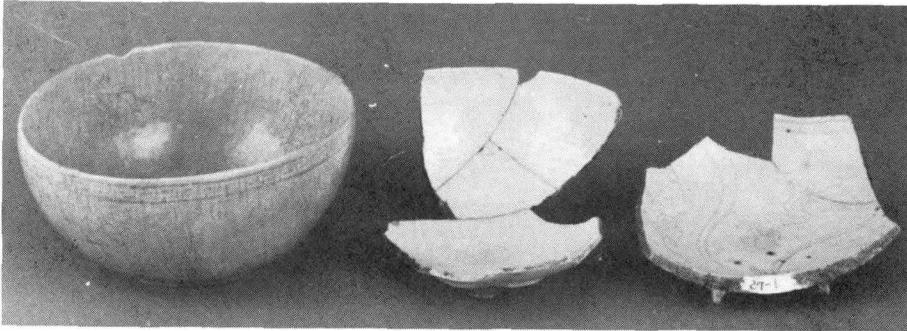
〈圖 49-1〉白磁無文대접 (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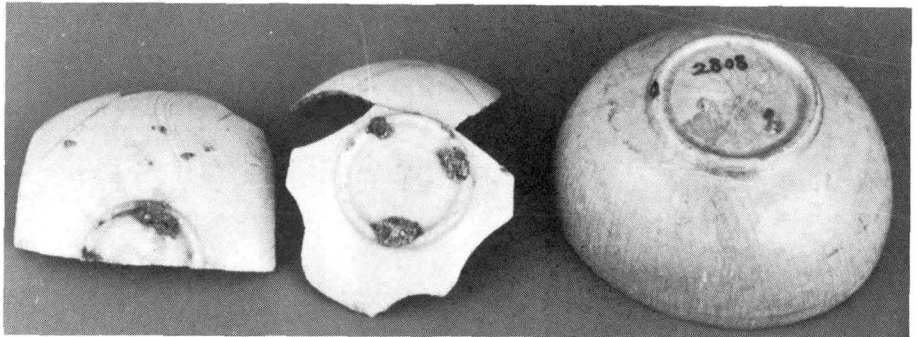
〈圖 49-2〉



〈圖 50〉白磁陰陽刻蓮瓣文잔 (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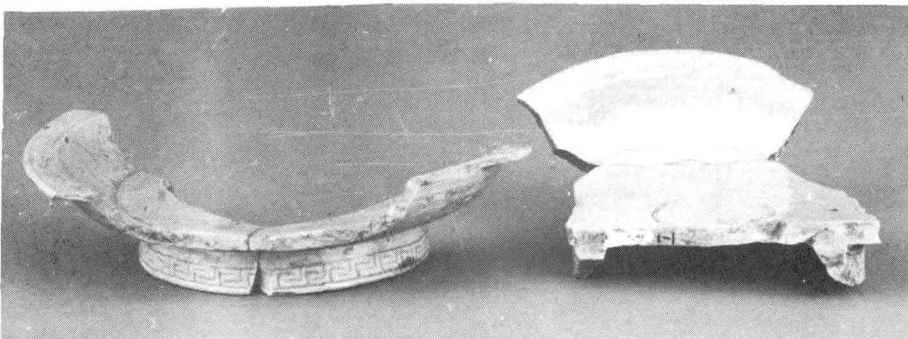
〈圖 51-1〉白磁陰刻文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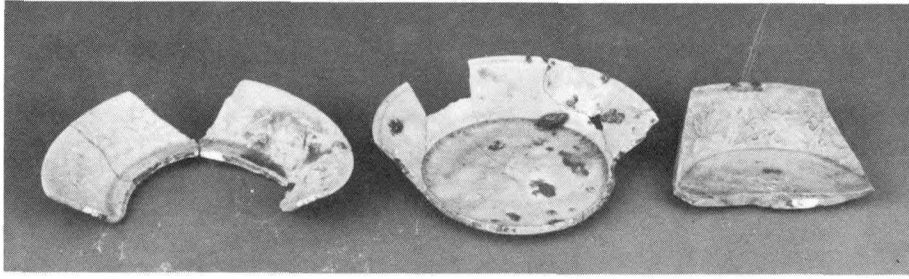
〈圖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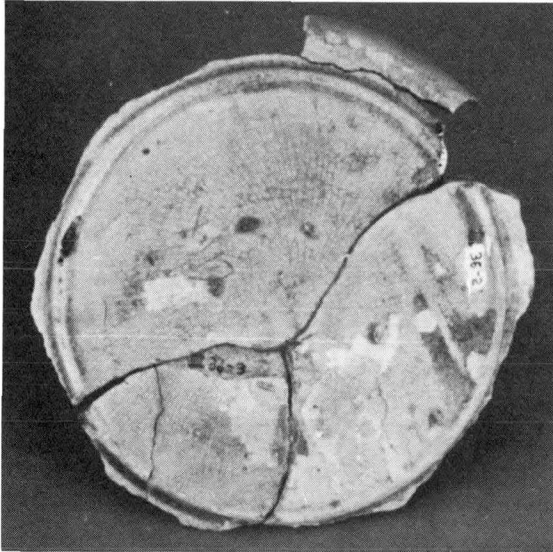
〈圖 52〉白磁陰刻托蓋台(梨大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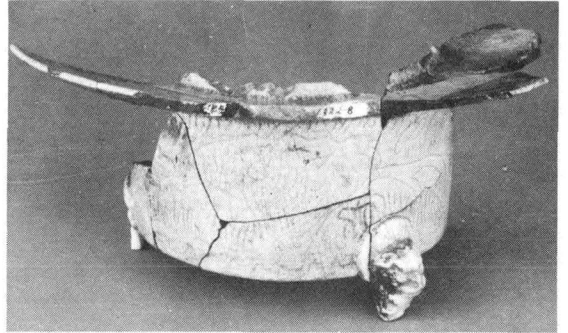
〈圖 53〉白磁陰刻牡丹文承盤  
(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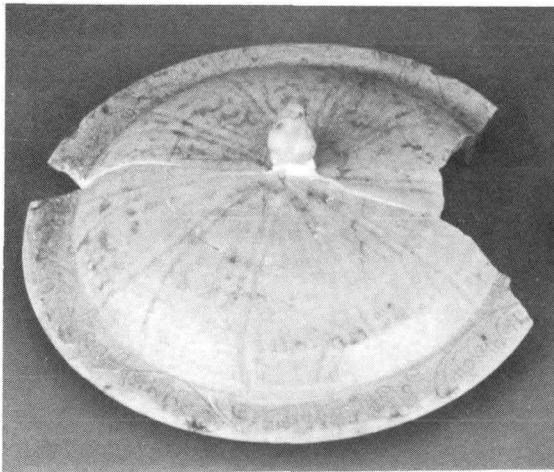
〈圖 54〉白磁 접시 (梨大 소장)



〈圖 55〉白磁陰刻「志」銘접시 (梨大 소장)



〈圖 56〉白磁陰刻항로 (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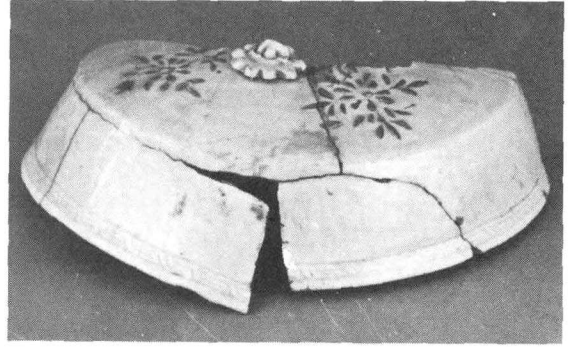
〈圖 57〉白磁陰刻盥뽀경 (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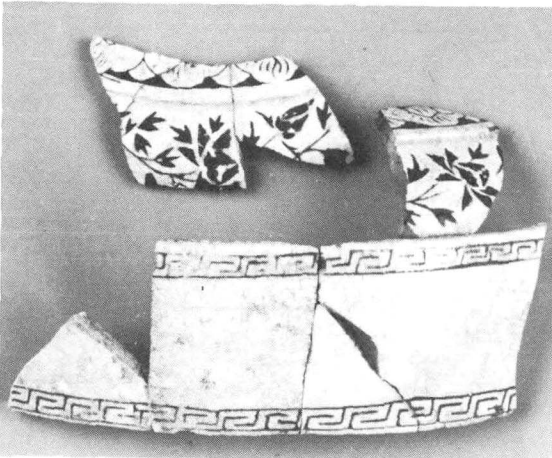
〈圖 58〉白磁陰刻蓮·牡丹文梅瓶뽀경 (梨大 소장)



〈圖 59〉白磁陰刻蓮·雙鳳文盒(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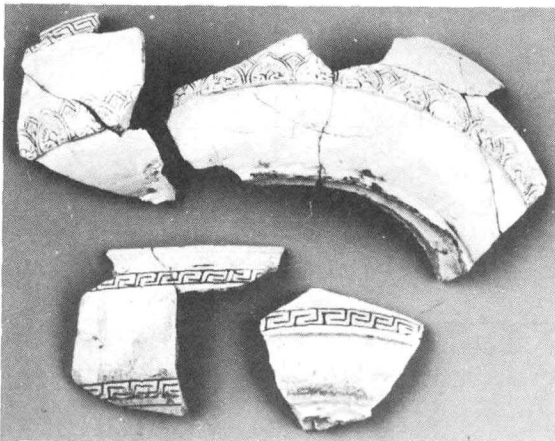
〈圖 60〉白磁陰刻象嵌菊花文 뚜껑(梨大 소장)



〈圖 61〉白磁象嵌牡丹文盒 뚜껑(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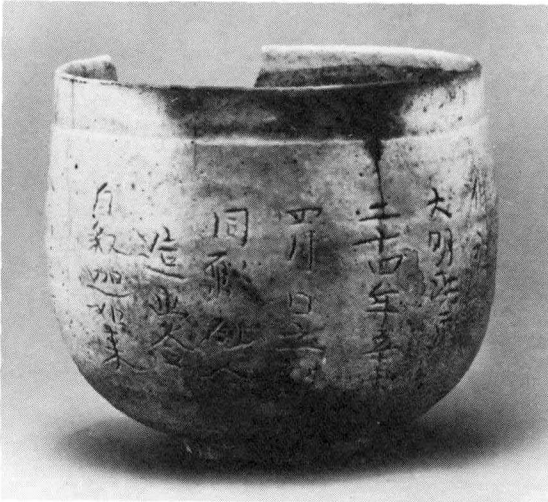
〈圖 62〉白磁象嵌菊花·雙鳳文盒 뚜껑(梨大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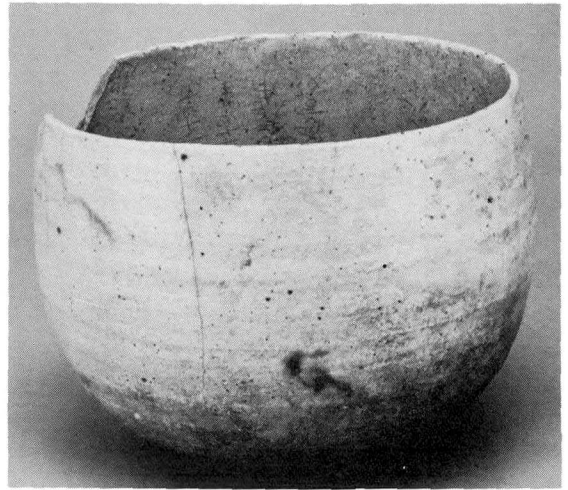
〈圖 63〉白磁象嵌盒(梨大 소장)



〈圖 64〉白磁象嵌장구(梨大 소장)



〈圖 65 A〉 洪武24年 銘白磁鉢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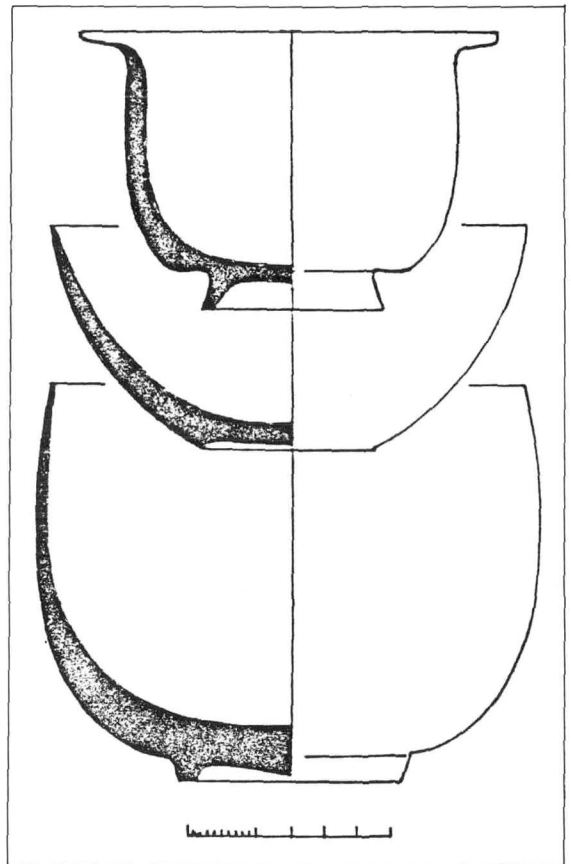
〈圖 65 B-1〉



〈圖 65 B-2〉



〈圖 66〉 洪武24年銘白磁鉢·일팔유물중 白磁盃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圖 67 上 洪武24年銘白磁鉢·일팔유물중 白磁香爐  
中 〈圖 66〉 실측도  
下 〈圖 65 A〉 실측도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P. 48 圖面に 의함)